

“美 관세협상, 주도권 확보 과정… 원전 2기·SMR 건설될 것”

김정관 산업장관, 기자간담회

“인도 등 美 관세 무지막지 올라
협상 진행중, 나쁘지 않은 상황”
“2035년 대비 원전건설 불가피”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가 긴박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협의가 양국간 치열한 밀고 당기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상이 끊기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쁘지 않은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지난 16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산업부 출입기자단과의 만찬 간담회에서 한미 관세 협상 상황과 관련해 “인도나 스위스, 중국을 보면 협상이 안되면 관세가 무지막지하게 올라가는 상황”이라며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3500억달러 투자가 미국으로 다 흘러간다고 오해하는데 그런 구조는 아니다”며 “일본은 5500억달러 펀드를 두고 MOU(양해각서)라는 접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6일 세종시 장군면 한식당에서 산업부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을 찾았는데, 우리도 협상 속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협상 과정에서의 고충도 털어놨다. 그는 “속된 말로 트럼프 임기 동안은 피해 기업에 관세 보조금을 주며 버티자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었다”면서도 “관세 협상은 단순히 피해 보는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 나아가 우리나라

미래를 결정하는 판단”이라고 했다. 이어 “작은 것 하나라도 정성을 들이면 조금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미국을 오가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취임 이후 20차례 러트니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관세 협상과 후속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책상도 치고 목소리가 커지는 경우도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이 말한 ‘내가 10을 얻고 싶으면 100을 요구하라’는 거래의 기술이 그대로 적용되는 장면을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여기는 안도 미국에선 불합리할 수 있다”며 “양측이 다소 터프하게 오가더라도 결국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지점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내놨다. 김 장관은 “신규 원전 2기와 SMR(소형모듈원자로)는 건설해야 한다고 본다. 공론화 과정을 거치더라도 결국은 건설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5년 이후의 전력 수요를 대비하는 장기 계획”이라며 “당장은 필요하지 않아도 2035년 이후 전력 수요를 생각하면 원전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원전 수출과 국내 원전 건설 역할 분리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선 “국내 건설과 글로벌 수출은 성격이 달라 산업부가 수출을 맡는 것이 타당하다”며 “부작용은 슬기롭게 해결해야 하는 미션”이라고 했다.

산업부 에너지 부문을 환경부로 옮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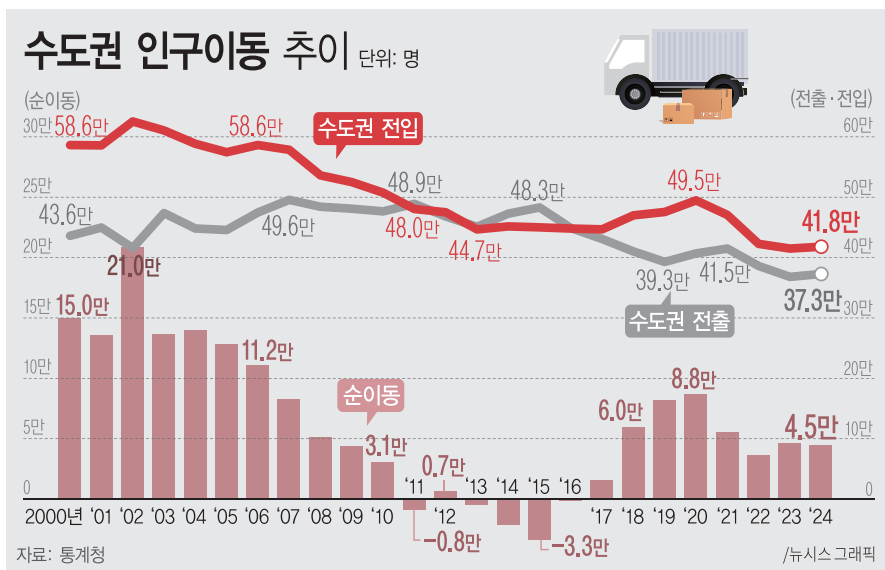
는 정부 조직개편에 대해선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김 장관은 “에너지 분야에서 일하다 장관이 된 만큼 안타깝지만 정부가 정한 결정이니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김성환 장관이 ‘산업과 에너지는 한 몸’이라고 한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에너지부라고 부르고 싶다”며 “환경보다 에너지가 중심이 돼야 한다. 산업부와 함께 있을 때보다 떨어져 있을 때 더 잘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통상 협상과 더불어 국내 산업 현안도 챙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관세 협상이 아니면 ‘M.AX(제조업 인공지능 전환)’가 1순위 정책”이라며 “AI 도입이 어려운 곳을 직접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또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은 기업들이 절박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는 절박함을 구체적 사업으로 만드는 기업에 지원하겠다. 10월쯤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직업·교육 찾아 청년층 20년째 수도권 유입

통계청,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
2052년 수도권 인구 53.4% 전망

수도권 인구가 8년째 순유입을 나타냈다. 특히 비수도권 태생의 청년층이 취업 및 교육의 이유로 서울·경기·인천으로 향하는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에 따르면 지난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전입한 인구는 41만8019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전출한 인구는 37만2850명으로 이보다 적었다.

작년 한 해에만 4만5169명이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것이다. 수도권 인구는 2011년 순유출로 돌아섰다가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2017년에 다시 증가(순유입)로 복귀했다.

수도권 순유입 규모는 2017년(+1만6006명)에 비해 2018년(+5만9797명)과 2019년(+8만2741명), 2020년(+8만7775명)에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후 2021년에 +5만5697명, 2022년 +3만6643명, 2023년 +4만6869명, 2024년 +

4만5169명 등이다.

수도권 인구 집중의 주 원인으로 청년층의 수도권 내 취업·교육이 꼽힌다. 지난해 40~64세 중장년층 인구는 수도권에서 1만7983명 순유출됐다. 이에 비해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청년층(19~34세) 인구는 중장년층에 비해 훨씬 많은 6만1490명에 달했다. 청년층 인구는 2004년부터 20년째 순유입, 중장년층 인구는 2007년부터 17년째 순유출을 기록했다.

수도권 지역 중 서울은 인구가 순유출되고 경기는 순유입되는 현상이 지속됐다.

지난해에도 서울 인구는 4만4692명 순유출, 경기는 6만4218명 순유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은 2023년(-3만1250명)에 비해 유출 규모가 커졌고 경기는 2023년(4만4612명)에 비해 유입 규모가 확대됐다. 인천의 경우 2017~2020년 인구가 순유출됐다가 2021년부터 2024년(2만5643명)까지 4년 동안은 순유입됐다.

다만 청년층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모두 인구가 순유입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LGU+, 부산서 자율주행버스 4대 운행

오시리아역·기장해안로 등 서비스
당분간 무료… 향후 운행구간 확대

LG유플러스가 부산 오시리아 관광 지구에서 시민 대상 자율주행버스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7월 개통식 이후 2000km의 시운전을 마치고 안정성과 신뢰성을 검증했다.

자율주행버스는 16인승 전기버스 4대가 투입돼 오시리아역·롯데몰·국립부산과학관·기장해안로 구간을 오간다. 일반 차량과 같은 도로를 달리며 신호등과 연동해 자동 정차·출발하고, 보행자와 도로 상황을 인식해 안전하게 운행한다.

시민들은 정류장에서 일반 버스처럼 탑승할 수 있으며, 당분간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버스는 동일 노선을 반복 운행하며, 이용객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다. 향후 내성~중동 BRT 구간으로도 확대된다.



자율주행버스가 동해선 오시리아역을 지나고 있는 모습.

/LG유플러스

이번 사업은 LG유플러스가 주관하고 라이드플러스(자율주행차 제작), 엔제로(관제시스템), 트라콤(교통인프라)이 참여했다. 차량, 도로 인프라, 관제센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아 돌발 상황에 대응하며, 관제센터는 버스 위치와 상태를 실시간 관리한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스마트 모빌리티 생태계 확산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강릉·천안·시흥 등에서의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부산을 시작으로 친환경 자율주행 교통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서현 기자 seoh@

상반기 지식서비스 무역수지 45.3억 弗 적자

한은, 수출 197.1억 弗 기록

올 상반기 우리나라의 지식서비스 무역수지가 45억3000만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법률, 회계, 경영컨설팅 등 전문·사업서비스와 지식재산권 사용료 등에서 적자폭이 컸던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식서비스 무역통계(잠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식서비스 무역수지는 45억3000만달러 적자다. 수출이 197억1000만달러, 수입이 242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식서비스 무역수지는

지식서비스 부문의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것으로 ▲지식재산권 사용료 ▲정보·통신 서비스 ▲문화·여가 서비스 ▲전문·사업 서비스를 포함한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보·통신 서비스는 19억6000만달러, 문화·여가서비스는 4억4000만달러 흑자를 냈다.

우리나라 제작사가 넷플릭스나 디즈니플러스 등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드라마를 납품하거나 우리나라 아이돌 가수가 해외에서 콘서트를 열어 벌어들이는 수입이 문화·여가서비스로 잡히면서 증가했다. 전문·사업서비스

는 44억8000만달러 적자를 냈다. 우리나라 업체가 외국회사에 전문 연구개발(R&D)을 발주해 수입이 늘었다.

전문·사업서비스의 수입은 ▲2023년 상반기 70억6000만달러에서 ▲2024년 상반기 84억2000만달러 ▲2025년 상반기 94억5000만달러로 증가했다.

지식재산권 사용료도 24억5000만달러 적자를 냈다. 지식재산권 중 저작권은 15억3000만달러로 흑자를 냈지만, 산업재산권은 18억1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산업별로는 정보통신업에서 16억4000만달러 흑자를 냈지만 제조업과 디지털 중개 플랫폼에서 각각 24억7000만달러, 22억달러 적자를 냈다.

/나유리 기자 yul115@

“금융 조직 개편안, 이해상충에 정책·감독 효율성 떨어질 것”

국민의힘 긴급토론회

교수 등 전문가 반대 논리 청취
22일 정책의총 통해 입장 정리
“경제부처 개편, 개악에 가까워”

국민의힘이 17일 이재명 정부의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반대 논리를 청취하는 긴급 간담회를 열고 오는 22일 열리는 정책의총에서 전체적인 정부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정부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재부·금융위 조직 개편안 토론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경제 부처 개편안은 ‘개편보다 개악에 가깝다’는 입장을 냈다.

이재명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기재부 개편안을 내놔다. 재정경제부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하고 기획예산처는 기재부의 기획·예산 기능을 도맡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금감원에서 있던 소비자보호처를 떼어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둔다는 계획이다. 건전성과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을 이원화한다는 명분이다.

또한 정부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모두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금융위 조직 개편안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여야 원내대표는 3대 특검 연장 법안을 완화해 처리하는 대신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안에 야당이 협조하는 합의를 했으나, 합의가 여당 내 갈등으로 결렬됐으며,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 조직개편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부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 처리를 미룰 경우 민주당은 관련 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재부는 그동안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소비쿠폰 사업과 같은 과도한 재정 지출이나 부채 누적형 사업에 제동을 걸어왔다”며 “그래서 총리 산하에 별도의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예산권을 직접 장악하고 기재부의 통제와 견제를

우회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책위의장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분리 운영했지만, 예산과 재정 기능을 떼어낸 경제정책 총괄은 불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결국 이명박 정부에서 기재부로 다시 통합한 전례가 있다. 이재명 정부는 그 실패의 길을 다시 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금융감독 체계 개편 역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정책과 감독이 명확히 나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기관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 네 곳의 감독을 동시에 받는 기형적 구조에 놓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구민교 서울대학교 행정

대학원 교수는 기재부 개편을 두고 “기재부는 그간 예산의 편성과 집행, 국가채무의 관리를 포괄하며 마지막 안전판으로서 역할을 해왔다”며 “권한 집중에 대한 비판,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하는 모습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예산당국이 독립된 처로 분리될 경우 정치적 압력에 더 취약해질 것이 확실시 된다”고 말했다.

구 교수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두고 “이명박 정부 때 정책과 감독을 분리했던 근본 취지, 즉 관치 금융과 규제 포획 문제를 줄이고 금융 감독의 독립성을 높이려던 노력과 상충된다”며 “정책 부서는 대출을 늘려 경기를 살리자와 같은 확장적 목표를 갖기 쉽고, 감독 부서는 부실이 나지 않게 대출을 조이는 안정 목표를 우선한다. 두 상이한 정책 목표가

한 조직 안에 섞여 있으면 스스로 만든 규제를 스스로 느슨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유인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위원회가 혁신·서민·주택·생산금융과 자본시장에서 관세 등 여러 대응을 다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당 정책기능이 재정경제부로 가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며 “은행·증권·카드·보험·보증까지 합치면 우리나라 금융회사가 1만 2000개가 넘고, 금융업에서 IT(정보기술)의 부분이 커지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등 해외 금융이 들어오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 체제로 가게 되면 감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교수는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이 될 경우 감사원의 직무·회계 감사 때문에 본연의 직무에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오창화 금융감독원 팀장도 ‘개인적 의견’을 전제하며 토론회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반대 입장을 냈다.

오 팀장은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을 단일 기구에서 하면 이해상충이 발생하고 건전성 감독에 치우쳐 영업행위 감독을 소홀히 해 대규모 불완전 판매가 이뤄진다는 것이 (정부의) 논지”라며 “현장에서선 그렇지 않다. 현장은 두 감독기능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서로 보완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수의계약-경쟁입찰’ 줄다리기… 사업 지연 장기화 되나

〈방위사업청〉

〈민간위원〉

한국형 차기 구축함 표류

KDDX 사업자 선정 2년 넘게 지연
방산업계, 해군 등 전력 공백 우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이 2년 넘게 지연된 가운데 방위사업기획관 리분과위원회(분과위) 안전에서 또다시 제외됐다. 사업 진행이 계속 연기되면서 해군 전력 공백과 첨단 기술 적용 차질, 방산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전날 상세협력방안에 대한 추가 검토를 이유로 오는 18일 열리는 제130회 분과위 안전에서 KDDX를 제외하기로 했다.



KDDX 조감도.

/HD현대중공업

방사청은 당초 이번 회의에서 ‘상세설계 및 선도함(1번함) 건조’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안전을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민간위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방사청은 올해 3월과 4월에도 같은 안전을 올렸으나 민간위원 의견 불일치로 보류된 바 있다. 이번에도 결론을 내리

지 못하면서 이달 30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도 KDDX 논의는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로써 지난 2023년 12월 기본설계가 완료된 이후 1년 9개월째 사업이 표류하는 상황이다.

KDDX는 7조800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30년까지 6000t급 구축함 6척을 확보하는 대형 사업이다. 개념설계는 한화오션,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맡았다.

이번 단계는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로 사업 본격 착수에 해당한다. 그러나 방사청은 특정 업체를 바로 지정하는 ‘수의계약’을 고집하고, 민간위원들은 공정성을 이유로 ‘경쟁입찰’을 요구하면서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사업 진행이 계속 연기되면서 해군과

방산 업계 일각에선 강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업 지연은 곧바로 해군 전력 공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해군이 운용 중인 광개토대왕급 구축함 3척은 지난 1998~2000년 사이 취역해 오는 2028~2030년 사이 설계 수명을 다한다.

같은 시기 성급호위함, 초계함도 줄줄이 퇴역에 들어가 오는 2032년까지 최소 6척 이상이 전력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해군은 서해·남해·동해 3개 작전 해역에 전력을 분산 배치하고 있지만 구축함 공백이 30%에 달할 경우 각 해역별 최소 대응 전력 확보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 구축함은 원해 작전과 다층 방어 체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구축함의 공백은 곧 해상 통제력 약화로 직

결된다.

해의 주요국도 유사한 사례를 겪었다. 영국은 Type 45 구축함 개발 지연으로 노후 Type 42 운용을 연장하고 호위함을 임시 투입해 공백을 메웠다. 미국은 줌월트급(DDG-1000) 개발 차질에 대응해 알레이버크급(DDG-51)을 추가 건조했고, 호주는 호바트급 구축함이 늦어지자 애들레이드급 호위함을 개량해 긴급 운용했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현실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빠르게 사업이 진행돼 추가적인 전력화 지연을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사업의 지속되는 연기로 전력과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달 방추위 안전에서도 KDDX 논의가 빠진다면 사업은 사실상 내년으로 넘어가 해군 전력 공백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중기중앙회 “배임죄 폐지 등 경제형벌 합리화 필요”

중처법 완화 등 14개 과제 건의

중소기업중앙회가 경제형벌 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과도한 법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경제형벌 합리화’ 개선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17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여기에는 ▲배임죄 폐지 및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



개선(과태료 전환) ▲폐기물 과징금 산정기준(매출액 범위) 명확화(과징금 합리화) 등 14개 개선과제가 담겨 있다.

화(형벌 폐지) ▲중대 재해처벌법 완화(형량 조정) ▲환경범죄단속법 처벌체계 개선(형량 조정) ▲폐기물 처리 관련 과도한 규제 부담

중기중앙회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단장 권칠승 의원)와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중소기업 소통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는 배임죄 폐지뿐만 아니라 단순 행정적이나 경미한 위반까지 형사 처벌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빈번하다며 개선 필요성

을 강조했다.

현장에서선 “카페·편의점 같은 소상공인들은 간판이나 배너 등 옥외광고물 설치가 필수인데 단순 변경신고 누락만으로도 벌금 대상이 돼 생계에 큰 부담이다”라거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거나 기록을 보관하지 않는 단순 행정착오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불안하다. 과징금으로도 충분히 제재할 수 있다”는 등의 목소리가 높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사진)은 “중소

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법무 지원 인력이 부족해 동일한 규제도 훨씬 더 무겁게 작용한다”며 “단순한 실수까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구조는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불합리한 경제형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도전·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日·EU 배터리 동맹… 정부협력·R&D 부족 韓, 경쟁력 위기

일본·EU, 재활용·인력 양성 협력
정상회담서 ‘경쟁력 동맹’ 공식화

한국, 기업 대응만론 역부족
핵심원료 등 중국 의존도 여전
“유럽시장 선점, 정부역할 관건”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배터리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함에 따라 현지 생산을 늘리는 국내 기업의 대응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최근 유럽연합(EU)과 배터리 공급망 재활용·데이터 공유·인력 양성 등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EU와의 추가 협약이나 실행 단계의 지원책이 아직 뚜렷하게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LG화학 배터리 양극재.

/LG화학

업계 한 관계자는 “국가 간 공급망 협력 체계가 아직 없어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정부가 광물 확보

나 현지 재활용 인프라를 지원하면 기업들의 대응이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3대 배터리사가 폴란드·헝가리 등지에 대규모 생산기지를 구축하며 유럽 시장에서 선제적으로 입지를 넓혀왔다. LG에너지솔루션은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을 중심으로 삼성SDI는 헝가리 괴드 공장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양산하고 있으며 SK온 역시 헝가리 코마름과 이반차에 배터리 공장을 운영 중이다. 이들 기업은 리튬의 경우 칠레·캐나다·호주 등과 광산 계약을 맺고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니켈·코발트 등에서도 아프리카·남미 광산 투자와 장기 구매 계약을 통해 ‘탈중국’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핵심 원료 상당 부분이 여전히 중국에서 조달되는 구조적 한계는 남아 있다.

일본은 정부 주도로 EU와 공급망 협

력을 공식화하며 추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과 EU는 지난 7월 정상회담에서 경제안보와 산업 강화를 위한 ‘경쟁력 동맹’ 출범에 합의했고, 이후 재활용·데이터 공유·인재 육성 등을 포함한 공급망 협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유럽의 전기차 배터리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핵심 광물의 공급망은 여전히 중국 의존도가 높다. 희토류는 중국이 세계 생산의 60~70%, 정제 능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리튬이온 배터리 음극재의 핵심 원료인 흑연 역시 정제·가공 부문에서 중국 점유율이 70~80%에 달한다. 중국은 2023년부터 고순도 흑연에 대한 수출 허가제를 시행해 공급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 유럽 각국은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의존이 공급망 붕괴, 기술·원자재 확보 실패 등으로 이어져 경제안보 측면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

업계는 한국이 기업 주도만으로는 EU의 재활용 원료 의무화 등 강화되는 배터리 규제와 일본 정부의 전폭적 지원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일본이 미쓰비시·파나소닉 등을 중심으로 유럽 각국과 협력을 강화하면 한국 기업이 뒤처질 수 있다”며 “나트륨이온·전고체 등 차세대 기술은 초기 개발비가 막대하고 국제 협약이나 공동 연구에도 국가 차원의 조율이 필요해 기업에만 맡기기 어렵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해야 일본의 협력 네트워크 확장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EU가 재활용 분야 협력을 강조하는 만큼 한국 기업들도 현지 재활용 기술 강화와 소재 내재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CBAM 시행 3개월 전… 철강업계, 10년간 2.6조 부담 ‘불가피’

EU, 탄소산정·공제안 이달 의견 수렴
전기로·수소환원 등 탈탄소 전환 가속
저탄소 제품 확대…시장 대응 분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다. 유럽연합(EU)이 해외에서 생산돼 수출되는 제품에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국내 철강업계에는 사실상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세부 부과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년 국내 철강업계가 부담해야 할 인증서 비용은 약 851억 원으로 추산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지난달 28일 CBAM 상품 배출량 산정 방식, EU ETS(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무료 할당 반영 규칙, 제3국 탄소 비용 공제 규칙 등에 대해 이달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핵심은 두 가지다. EU 철강사에 지급하던 무료 배출권이 사라지는 만큼 수입



동국제강 인천공장의 한 직원이 에코아크전기로서 작업을 하고 있다.

/동국제강

업체 제출 인증서를 줄여 ‘공정 경쟁’을 보장하는 것과 수출국에서 이미 낸 탄소 비용을 인정해 이중부담을 막는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이달중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초안을 회원국 전문가들과 논의한 뒤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최종

채택은 연내 이뤄질 전망이다.

대한상의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에 따르면 내년 국내 철강업계 CBAM 부담액은 약 851억 원, 오는 2026~2034년 누적 부담은 2조 644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세아제강 4개사의 영업이익의 합계 2조 2790억원과 비교하면 단기 영향은 영업이익의 3.7% 수준이다. 그러나 오는 2034년에는 연간 부담이 5500억원으로 불어나 영업이익의 24% 수준까지 치솟게 된다. 단순한 비용 항목을 넘어 산업 체질에 직접 타격을 줄 수 있는 규모다.

철강업계는 이미 복합 위기에 놓여 있다. 중국발 저가재 공세, 미국·EU의 통상 압박, 내수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여기에 CBAM까지 더해지면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하다.

이에 기업들은 저탄소 전환으로 활로를 찾고 있다.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개발하고, 현대제철은 전기로 제철소 건설을 추진한다. 동국제강은 차세대 전기로와 친환경 제품 확대에 집중하고, 세아제강은 해상풍력 구조물 생산을 강화한다. 방식은 다르지만 탄소 배출을 줄여 유럽 시장 진입 장벽을 넘겠다

는 목표는 같다.

정부 역시 한국형 CBAM 도입을 검토 중이다. 배출권거래제(ETS)와의 연계, 국제 동향 분석이 동시에 진행된다. 국회에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이 발의돼 수소 환원제철 등 탈탄소 기술 투자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근거가 마련됐다.

업계 관계자는 “탄소 감축을 위한 친환경 공정 전환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미국과 일본도 수십 년의 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저탄소 공정 비중을 확대해 왔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CBAM 시행으로 탄소 배출 저감이 더욱 절실해진 만큼 기업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국가 차원에서 기술 혁신 투자 지원과 국제 표준 제정 과정 참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혜은 기자 dhale@dhale.com

“산업·안보 아우르는 종합 전략 필요”

한경협, 디지털 통상 현안 진단
지도·클라우드·망 사영료 등 쟁점
민관 공동 대응 전략 시급 강조

미국이 한국의 디지털 제도를 비판세 장벽으로 지목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산업과 안보를 아우르는 종합 대응 전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7일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과 함께 ‘디지털 통상시대, 현안과 경제안보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우영 의원은 개회사에서 “디지털 통상은 단순한 무역 이슈를 넘어 경제 안보와 국가전략이 맞물린 핵심 과제”라며 “고정밀 지도 데이터, 클라우드 보안, 망 사영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은 모두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권 의원은 “미국발 통상 압력 속 산업계의 경쟁력과 실익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 설계가 절실하다”며 “특히 디지털 통상은 안보에도 직결될 수 있는 민감한 분야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국이 한국의 디지털 제도 전반에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민관이 힘을 합쳐 안보와 통상을 연계한 협력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규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지털 통상환경 변화와 진단’ 발표에서 “미국은 한국의 디지털 제도가 자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어렵게 하고 역 차별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다”며 “특히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제한, 클라우드 보안인증 제도의 높은 진입 장벽, 통신사 중심의 망 사영료 부과, 플랫폼 규제 강화 등이 해외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단순한 수용이 아니라 산업계와 정부가 공동 대응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내 제도의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되 매년 발간되는 무역장벽보고서(NTE)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길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다른 국가들의 대처 방식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주형 서울시립대 교수도 ‘디지털 통상 도전과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발표에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미국이 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차별적 규제로 규정하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성운 기자 ysw@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환경 만들어야”

李 대통령, 청년 스타트업과 소통
재대전 펀드 1조, “규모 적다” 지적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청년 스타트업을 만나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창업자 지원 펀드인 ‘재대전 펀드’ 계획 규모 1조원에 대해 “적어 보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 스타트업스퀘어에서 열린 ‘청년 창업 상상 콘서트’에서 “우리 사회는 실패에 대해 너무 가혹한 것 같다”며 “지금은 청년의 용기와 도전을 통해 새로운 시장,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기술을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계 경쟁에서 이겨나가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청년의 날(9월20

일)’을 계기로 청년 스타트업의 의견을 듣고 새정부의 스타트업 지원정책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스타트업, 투자자, 관련 협회·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 어려운 세상이 됐다”면서 “옛날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뚝 떨어진 고생을 사서도 한다’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뺨 맞는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번 실패하면 끝이고, 도전 기회도 자주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한다”며 “실제 여러 제도를 보면 일종의 연대보증, 사업에 한 번 망하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다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못하게 옥죄는 제도도 많다”고 지적했다.

/서예진 기자 syj@

우리 마음속
첫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내 집 마련을 위해
**우리가 붙여넣는
버팀목이라는 희망**

주거안정을 위한 현명한 선택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우리WON뱅크
다운로드 하기

간편한 절차, 다양한 혜택!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일반가구 버팀목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만9세 이상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순자산가액 3.3억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1.2억(보증금 최대 70% 이내)
대상 여부에 따라 우대조건 제공

신생아 특례 버팀목

연소득 1.3억원 이하, 만2세 미만 신생아가 있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순자산가액 3.3억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2.4억(보증금 최대 80% 이내)
대상 여부에 따라 우대조건 제공

신혼가구 버팀목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순자산가액 3.3억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2.5억(보증금 최대 80% 이내)
대상 여부에 따라 우대조건 제공

청년전용 버팀목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만9세~만34세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순자산가액 3.3억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1.5억(보증금 최대 80% 이내)
대상 여부에 따라 우대조건 제공



* 상기 내용은 2025.8.1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정부시책,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기간: 상환방법: 2년 만기일시상환방식(2년 단위, 최장 10년까지 가능) * 금리: [일반가구] 최저 연 2.5%~최고 연 3.5%, [신생아 특례] 최저 연 1.3%~최고 연 4.3%, [신혼가구] 최저 연 1.9%~최고 연 3.3%, [청년전용] 최저 연 2.2%~최고 연 3.3% * 대출이자: 매월 후취 납부 *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금리 연 0.2%p 가산, 단, 갹신 임대차계약기간 또는 대출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연 0.1%p 가산 * 대출 실행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가산금리(금리변경)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우대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다문화장애인가구 노원양양고령차가구 연 0.2%p, 3자녀 이상 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1%p,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청년가구 연 0.3%p,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연 0.3%p,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임대차계약 연 0.1%p, 대출심사를 통해 신청한 대출금액의 30% 이하 대출 신청 연 0.2%p (상품별 우대 적용이 상이함) * 최저금리는 연 1.0%로 제한 * 고객 부담 비용: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최대 4억원 이하 기준, 인지도의 50%(은행과 고객 50%씩 부담, 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 지연배상금: 연체기간 3개월 이내 금리+연 4%, 3개월 초과시 금리+연 5%(최대 연 10% 초과할 수 없음) * 중도상환해약금: 없음 * 대출신청인이 신용관리대상자가거나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한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만기일이 경과할 경우, 연체이자 부과 및 신용관리대상자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은 대출취급자격을 충족이 되는 경우 개인의 신용등급, 소득, 직업, 자산 등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지 않는 단일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으로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이 아닙니다. * 대출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내장 게재연적 제한으로 상기 상품의 필요 공지사항의 전부를 표기할 수 없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참조하시고, 가까운 영업점이나 우리은행 고객센터(1588-5000 또는 1599-0800, 상담가능시간 평일 09:00~18:00)로 문의하시기나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포털사이트(http://nhuf.molit.go.kr) 및 우리은행 홈페이지(www.wooribank.com)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사인 심의필 2025-7391(2025.08.01~2026.12.31)

與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野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 필요”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與 “자본시장 활성화 반드시 필요
기업 의사결정 과정 공정해야”

野 “기업엔 쇠사슬, 노조엔 쇠파망치”
구윤철 “우려 없도록 규정 마련 중”

국회가 17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맞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으로 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기업의 부담을 덜어낼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일반적으로 선진국이 될수록 자본은 초고도화되고 자동화 AI(인공지능)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자산가치 상승에 비해 임금의 상승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왼쪽부터)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경제에 관한 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의원은 “과거처럼 월급을 꼬박꼬박 저축해도 내 집 마련이 힘들고 기업의 글로벌 성장세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이것이 소득 격차의 원인이 되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세대 간 소득 격차로 연결되고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엔 이런 자산 가치 상승, 자본의 성장세를 평범한 국민이 함께 향유



(왼쪽부터)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경제에 관한 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할 수 있어야 격차해소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려면 자본시장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재명 정부의 방향과 맞다고 생각한다”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물었다.

구 부총리는 “동감한다. 생산적인 금융, 그래서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시장의

기대를 반영해서 최근 우리 주식 시장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되려면 중요한 것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되고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여당이 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 진화적인 정책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노란봉투법 통과로 기업들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나”라며 “기업의 손에는 쇠사슬을 묶고 노조의 손에는 쇠파망치를 들려주고 있다고 탄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반드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해줘야 하고, 노동자들이 사업장 시설을 점거해서 파업하는 것을 금지시켜

야 한다. 파업 시에는 대체근로를 확실하게 허용해줘야 그나마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완 입법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한편에서 오프, 과정, 불확실성에서 생기는 여러 현장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한다”며 “그런 것을 포함해서 TF(태스크포스) 또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의원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심각한 경영 환경 악화가 예상된다”고 지적하자, 구윤철 부총리는 “노조든 기업든 어느 정도 소통을 하고 필요한 정상화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기업들이 우려하는 불확실성, 사용자 개념이나 실질적 경영과 관련해서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 그리고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서 시장에서 과도하게 우려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규정도 만드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국회 밖 상반된 행보… 與는 민심 수렴, 野는 장외투쟁

與, 전국서 예산정책협의회
野, 약 6년만에 장외투쟁 나서
오는 21일 대구서 당정 규탄

2026년도 정부 예산안, 국정감사 등 중요한 일정을 앞둔 여야가 극명하게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을 돌며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달아 개최하며 민심을 얻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6년만에 다시 국회 밖으로 나가 장외투쟁에 나서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제주도청에서 제주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정 대표는 현장에서 제주 4·3사건 보상 등을 언급하면서 제주도가 가진 역사적 가치, 공익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앞으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정신에 맞게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며 “제주도가 갖고 있는 역사적인 가치, 제주도 민들이 평화를 갈망하는 공익적인 가치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에서도 걸맞게 잘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오영훈 제주지사가 17일 오전 제주도청 로비에서 더불어민주당-제주특별자치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뉴시스

덧붙였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정부가 확정된 2026년도 예산안에서 제주도는 예년보다 많은 수준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오늘 건의드리는 805억원 규모 국비사업이 예산에 온전히 반영돼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도 요청했다.

김한규 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은 “제주도에서 예산 관련 요청을 많이 준비해 왔는데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정부여당에 부탁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와 잘 연결돼서 제주도 발전 자체가 이재명 정부 성공으로 국민께 인식될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들어 정부예산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예산정책협의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다. 지난 8일 대전·세종·충북·충남 지역을 시작으로 대구·경북(9일), 경기(10일), 전북(16일) 등을 방문했다. 조만간 광주·전남, 강원, 인천, 부산·울산·경남 등 지역을 방문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예산정책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치권이 모여 지역의 주요 현안과

국가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공식 회의다. 국비 확보, 지역 숙원 사업, 법안 통과 등 지역 현안을 주로 논의하게 된다. 현재 국회 정치 지형은 ‘여대야소’로, 민주당의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는 것이 지역으로서도 이득인 셈이다. 아울러 민주당 입장에서 내년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으니, 협의회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여당이 전국을 도는 사이, 야당은 광장에 나갈 태세다.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오후 2시 동대구역에서 정부·여당을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 투쟁에 나선다. 보수정당의 장외 투쟁은 2019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 이후 약 6년만이다. 국회 의석수에서 크게 밀리는 국민의힘으로서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거기다 정권도 내줬다.

국민의힘이 장외 투쟁 카드를 꺼내든 속내는 ‘여권이 연달아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이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주장하면서, 중도층이 이탈할 것으로 보는 셈이다. 또 최근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당 소속 의원들이 패

스트트랙 충돌 사건(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으면서 이제는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날(16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장외 투쟁 등을 포함한 대외 투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회 안에서 하는 규탄대회보다는 국회 밖에서 세를 모아 대규모 집단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달에만 벌써 두 차례 국회 본관 중앙계단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장외 투쟁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장외 투쟁을 할 경우 전국 시도당 당협위원회별로 당원을 동원해야 한다. 이 경우 당력과 당 재정이 지속적으로 소모된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2019년 ‘황교안 체제’ 당시 매주 반복되는 집회로 인해 당의 재정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가 여의도에서 돈 바 있다.

또 전광환 목사 등 아스팔트 극우 세력과 함께하는 모습을 부담스러워하는 반응도 나온다. 2019년 자유한국당도 ‘극우 세력이 당을 장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정기국회 회기 중, 게다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외 투쟁을 할 경우 여론의 동조를 얻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서예진 기자 syj@

與野, ‘나경원 간사 선임’ 두고 여전히 설전

與, ‘법원장 남편·징역형’에 부적합 주장
연말까지 野 간사 공백 장기화 전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에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간사 후보를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법사위에 ‘야당 간사’가 없는 상황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법사위는 전날(16일)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을 여권 법사위원들 주도로 부결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여권 법사위원들은 나 의원이 12·3 내란 사태에 대한 반성이 없는 점,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로 재판 중인데다 최근 구형까지 받았다는 점, 그리고 남편이 현직 법원장인 점 등을 이유로 부적합한 후보라는 입장이다.

법사위원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서 “저는 나 의원이 법사위 간사로, (더 나아가) 법사위에 배치된 것도 반대한다”며 “체적과 기피, 회피해야 하는 사유들이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나 의원 남편이 법원장이다. 그러면 법사위원이 심지어 법사위 간사까지 돼서 남편을 감사하냐”라고 되물었다. 이어 “당장 다음달부터 국정감사인데,

저희가 법원에 국정감사를 간다. 법원장들이 다 온다”며 “남편을 감사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재차 비판했다.

문제는 ‘야당 간사’가 부재하는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상임위 간사는 각 교섭단체가 후보로 올리면 대체적으로 통과시키는 게 관행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간사 선임을 표결에 부쳐, 부결까지 시킨 것이다.

그런데 국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으로 인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간사 선임 건을 상정하지 못한다. 결국 12월 초가 지나야 야당 간사 선출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나 의원 간사 선임을 철저히 막을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1반 반장 뽑는데 2반이 찬성·반대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라는 입장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보이는 행태는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결국 국민의힘 간사 선임마저 본인들 의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서예진 기자

SK하이닉스 AI의 미래를 높이 끌어올리다

AI 기술의 가능성을 한 단계 높이는 일
우리의 앞선 AI 메모리로부터 시작됩니다





카카오페이슨보 '직거래전월세보험'.



메트라이프생명 '소방관 전용 미니보험'.



삼성화재 '해외 2시간 항공지연 특약'.

전세사기·고위험 직군·항공지연 보험사, '틈새 보장' 신상품 공세

카카오페이슨해보험

직거래 전월세 보증금 전액 보상

메트라이프생명

소방관 미니보험 합리적 설계

삼성화재

국내외 항공지연 특약 전면 확대

보험사들이 '보장 사각지대' 해소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임차인 직거래 구간, 소방관 등 고위험 직군, 해외 항공지연 처럼 기존 보장망이 미흡했던 빈틈을 겨냥한 신상품·특약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슨해보험은 지난달 공인중개사 없이 체결하는 전·월세 직거래 계약을 겨냥한 '직거래전월세보험'을 선보였다. 모바일 기반 상품으로 오프라인은 물론 '당근' '피터팬' 등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을 통한 계약도 가능하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기존 보증이 취약했던 입주 전 구간까지 가입·보장을 열어 대항력(확정일자·전입·점유) 확보 이전에 벌어질 수 있는 피해 리스크를 댄다. ▲가짜 집주인과의 계약 ▲무권대리인 계약 ▲동일 주택 이중

계약 ▲전입 당일 집주인의 대출 실행으로 생기는 선순위 권리 ▲이전 세입자의 점유로 인한 입주 불가 등이 발생하면 보증금 손실 전액을 보상한다. 보장대상은 아파트·연립·다세대·주거용 오피스텔의 전세·월세 보증금으로 보장금액 1000만~5억원 구간에서 설계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슨해보험은 "전세사기 피해 사각지대에 놓인 직거래 계약의 위험을 보장하는 모바일 기반 최초 보험 상품"이라고 밝혔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최근 고위험 현장 직군인 소방관 전용 미니보험을 출시했다. 기본 담보는 ▲재해 사망 ▲재해 장애 ▲중증 화상·부식 ▲재해 골절 ▲재해 수술 등 5종이다. 재해 장애는 지급률 3~100%까지 폭넓게 설계했다.

현장 직군의 가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절차도 간소화했다. 소방공무원 신분 증명 사진만 제출하면 별도 심사 없이 간편 가입이 가능하고 사고 시 즉시 지급을 표방한다. 가입 대상 20~60세 소방공무원, 만기 1년, 보험료는 40세 기준 남성 5150원, 여성 3400원이다. 재해 사망 500만원, 재해 장애·중증 화상 각 250만원, 골절·수술 각 5만원을 보장한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소방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해 위험을 종합

적으로 보장하면서도 1만원 미만의 합리적인 보험료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전했다.

삼성화재는 해외 출발·입국편에서 2시간 이상 지연·결항 시 실손형 보장을 제공하는 '해외 2시간 항공지연 특약'을 선보였다. 해외 공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편과 해외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편을 대상으로 지연·결항으로 발생한 비용을 최대 50만원 실손 보상한다. 대상 비용은 식음료·숙박·편의시설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올해 1월 도입한 국내 출국 지연 '정액형'(최대 10만원)과 결합해 국내·해외 모든 공항의 '2시간 지연'을 커버하는 체계를 완성했다는 점에서 '사각 해소'의 상징성이 크다. 고객은 국내 출국 지연은 간편 정액 보상으로, 해외 지연은 실손 보상으로 각각 대응할 수 있다.

삼성화재는 "항공지연 관련 특약을 모두 가입할 경우 국내출발 항공지연은 정액형으로 최대 10만원까지 즉시 보상받을 수 있다"며 "해외출발 항공지연은 숙박 등 큰비용이 발생해도 실손형으로 최대 5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대출·보험·투자 등 전 과정 중대재해 관리 강화 나선다

금융권 '노동안전 대책' 후속조치
사고이력 신용평가·보험료 차등
기관투자 스튜어드십코드 개정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라 여신 심사, 자본시장 평가 반영 등 금융부문 관련 추진 목표를 마련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사고의 원인을 근본적·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 과제로 구성됐다. 여신심사, 자본시장 평가 반영 등 금융부문 관련 과제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금융권 대출·보험, 정책금융, 자본시장 공시·평가 등 전 금융부문을 포함하는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금융권은 건전성 관리를 위한 규율 강화와 함께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우대 조치를 병행하는 양방향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은행대출 부문에서는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 등에 명시 반영하도록 하고, 중대재해가 포함되는 감액·정지 요건을 은행권 전체로 확대한다. 보험 부문에서는 중대재해발생기업에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 등의 보험료를 할증을 적용하는 한편, 안정성 공인 인증 기업에는 보험료 할인을 제공한다.

정책금융 부문에서는 산은·기은·신보를 통해 안전설비 신규투자기업과 안전 우수 인증기업에 우대 상품을 공급하며, 주택금융공사도 PF상품에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우대 보증료율을 적용해 공급한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시 관련 내용의 거래소 공시를 의무화하고, 현황·대응 조치 등을 사업·반기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하는 등 자본시장 영역에서도 후속 조치가 마련된다.

아울러 국민연금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가 중대재해 발생 여부를 투자판단에 활용하도록 하는 스튜어드십코드·가이드라인의 개정도 올해 추진된다. 스튜어드십 코드 고려 요소에 '사회적 신용'을 포함시켜 중대재해 발생 등 노동 관련 법 위반 여부를 명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삼성물산, 카타르 1.4조 태양광발전 수주

韓 건설사 시공 역대 최대 용량
전 과정 단독 수행… 2030년 준공

삼성물산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카타르 최대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삼성물산은 카타르 국영에너지회사인 카타르에너지가 발주한 총 발전용량 2000MW 규모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나찰통지서를 수령하고, 발주처인 카타르 에너지와 서명 행사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설계·조달·시공에 해당하는 EPC금액만 약 1조 4600억원 규모이다.

행사에는 삼성물산 오세철 대표이사 사장과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이자 카타르 에너지 최고경영자(CEO)인 사드 알카비(Saad Al-Kaabi) 등 양사의 최고경영진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풍부한 일조량을 자랑하는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서쪽으로 80km 떨어진 두칸 지역에 건설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발전 용량만 2000MW인 카타르 최대 태양광 발



삼성물산 오세철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카타르 에너지 최고경영자(CEO) 사드 알카비가 카타르 두칸 태양광 발전 서명 행사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전으로, 한국 건설 기업이 시공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중 역대 최대 용량이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부지만 27km²로 서울 여의도 면적(2.9km²)의 9배에 달하는데 사용되는 패널만 274만장에 이른다. 2030년 준공시 세계 최고 수준인 카타르의 1인당 전력사용량을 고려해도 75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삼성물산은 태양광 발전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을 단독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저축은행, 대출 규제에 예금금리 인하 '러시'

지난달 3.0%서 2.92%까지 하락
높은 금리로 수신 확보 유인 사라져

정부 대출 규제로 여신 잔액이 줄고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들이 정기에금금리를 내리고 있다.

17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권의 1년 만기 정기에금의 평균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 지난달 1일 기준 3.0%였던 정기에금금리는 같은달 13일 기준 2.99%로 떨어졌다. 이달 들어서는 하루이틀 간격으로 0.01%포인트(p)씩 하락하더니 최근 2.92%까지 내려왔다.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기조로 대출을 늘릴 수 없는 현 상황이 예금금리 하락 요인으로 꼽힌다. 저축은행들이 대출이 자로 수익을 보기 힘들어진 상황에서 굳이 높은 금리를 유지하며 수신을 확보할 유인이 사라진 것.

실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연 15.9%에 달하는 최저신용자 보증부대출 이자를 두고 "고신용자에게는 저리로 고액을 장기로 빌려주지만, 저신용자에게는 고리로 소액을 단기로 빌려줘 죽을 지경일



저축은행의 예금금리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의 한 저축은행.

/저축은행중앙회

것"이라면서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영역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업계에서는 저축은행을 포함한 제2금융권이 이로 인해 대출금리 인하 압박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6·27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제2금융권은 대출을 늘릴 수도, 대출금리를 올릴 수도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앞서 저축은행들이 예금금리 3.0%를 유지하면서 수신고를 미리 확보해 놓은 점도 영향을 미쳤다.

업계 관계자는 "대출 예상과 유동성 관리 등 두 가지 측면을 기준으로 은행

들이 수신 전략을 짤다"면서 "저축은행들이 예금금리를 3%로 유지하면서 수신을 확보해, 예금금리를 낮춰도 괜찮다고 판단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신금리는 저축은행 입장에서 일종의 비용"이라며 "운용을 통해 수익을 낸다는 예상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높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자금을 댄길 유인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수신 규모는 반대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정기에금 잔액은 958조 840억으로 지난달 말 954조 7319억원에서 3조 3521억원 증가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를 두고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으로 제2금융권에 자금이 몰릴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지만 오히려 저축은행들이 금리를 내리면서 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예금자보호한도가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아 더 지켜봐야겠지만, 자금쏠림 현상은 크게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LG, 美 대형 건설사와 독점 계약… B2B 생활가전 점령 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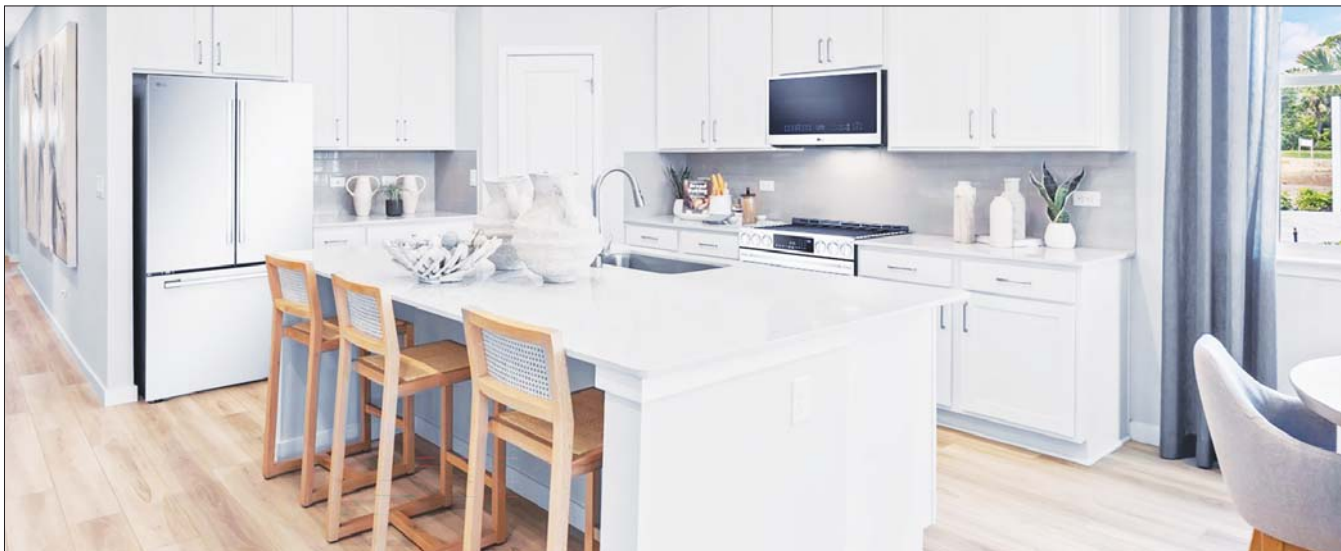
美 센추리 커뮤니티와 공급 협약
냉장고·세탁기 등 수만 채 전량 납품
‘썬규 AI·썬규 업’ 서비스로 차별화
빌더 사업 매출 전년비 70% 이상↑
레나 이어 두 번째 대형 빌더 성과

LG전자가 미국 건축업체에 대규모로 제품을 공급하며 현지 B2B(기업 간 거래) 생활가전 사업에서 본격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LG전자는 최근 미국의 대형 ‘빌더(건축업체)’인 ‘센추리 커뮤니티’와 생활가전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LG전자는 오는 2029년까지 ‘센추리 커뮤니티’가 미국에 짓는 수만 채의 신규 주택 전부에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오븐 등 고효율·AI 가전을 공급하게 된다.

특히 LG전자의 빌더 전담 영업 및 서비스 조직 ‘LG 프로 빌더’가 주축이 돼



LG전자가 미국 대형 빌더 ‘센추리 커뮤니티’와 생활가전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2029년까지 센추리 커뮤니티가 미국에 짓는 모든 주택에 고효율 및 AI 가전을 공급하게 된다. /LG전자

고객 라이프스타일과 주택 구조, 지형 및 기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맞춤형으로 가전을 제안 및 공급한다.

LG전자는 미국 환경정의 ‘에너지스타’ 인증을 받은 고효율 가전으로 집안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AI홈 플랫폼 ‘LG 썬규 AI’ 기반의 서비스로 차

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LG 썬규 AI’의 핵심 서비스는 ▲기존 가전에 새로운 AI 기능을 지속 업그레이드 하는 ‘썬규 업’ ▲고장이나 이상징후 등 제품 상태를 손쉽게 관리하는 ‘썬규 케어’다.

‘센추리 커뮤니티’는 미국 전역에

다양한 고객층을 위한 주택과 상업용 건물을 공급하는 대형 빌더로, 미국 내 상위 10대 빌더 중 하나로 꼽힌다. 빌더는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 범위와 매출 규모 등에 따라 대형·중형·소형으로 구분된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미국 2위 빌더

현대차·기아, 美서 안전·상품성 입증… 판매량 역대 최대

8월 미국 판매 17만9455대 기록
전기차·친환경차 모두 월간 최대
아이오닉5 충돌사고서 생명 지켜

세계적인 골프 스타 타이거 우즈와 18개월 쌍둥이 목숨을 지켰다.

바로 미국서 발생한 차량 대형 사고에도 뛰어난 안전성을 갖춘 현대차·기아 덕분에 생명을 지킨 탑승자들의 이야기다. 현대차·기아가 지난 8월 미국서 역대 월간 최대 실적을 달성한 가운데 차량의 뛰어난 안전성과 우수한 상품성이 소비자 선택을 이끌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17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현대차·기

아는 지난달 미국서 전년 동월 대비 10.9% 증가한 17만9455대를 판매했다.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다. 친환경차 판매량 역시 역대 최대 실적인 4만9996대로 전년 대비 51.8% 증가했다. 전기차도 1만6102대 팔리며 월간 최대 판매를 기록했다.

9월 말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중단으로 일시적으로 수요가 몰렸고, 현대차·기아 차량의 안전성과 상품성이 뒷받침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8월 전기차 판매량의 절반은 현대차 아이오닉5(7773대)다. 전용 전기차 플랫폼 E-GMP를 적용한 아이오닉5는 최근 실제 고객의 경험담과 충돌 평가를 통해 입증된 안전 성능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세인 배럿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SNS 이용자는 본인의 후방 충돌 사고에서 아이오닉5가 18개월 쌍둥이를 지켜냈다는 소식을 전했다. 후면 부가 파손된 아이오닉5와 온전한 카시트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유하며 “아마 다시 아이오닉을 살 것 같다”고 말했다.

아이오닉5는 지난 3월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IIHS)가 발표한 충돌 평가에서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TSP+) 등급을 받으며 최고 수준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IIHS 충돌 평가에서 아이오닉5 등 14개 차종이 TSP+ 등급을 받았다.

앞서 현대차그룹의 차량 안전성은 과

거 불의의 사고에서 탑승객을 지켜낸 사례들을 통해 입증된 바 있다. 지난 2021년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가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골프대회 행사 차량으로 지원된 제네시스 GV80 차량을 운전 중 차량이 여러 번 구르며 전복되는 사고를 당해 다리 부상을 입었다. 당시 사고 현장을 조사한 경찰은 차량 앞면과 범퍼는 완파됐으나 내부는 대체로 손상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2022년 12월에는 현대차 아반떼N을 탑승한 커풀이 미국 협곡에서 91m를 굴러 떨어지고도 큰 부상을 입지 않았다고 SNS 및 현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 있다.

/양성운 기자 ysw@



김필석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장(오른쪽)과 가우탐 크리슈나아 KBR 최고기술책임자(CTO)가 16일(현지시간) 포르투갈에서 열린 패스트마켓 컨퍼런스에서 수산하리튬 회수 기술 상용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폐배터리 재활용 수출

KBR과 글로벌 공략

SK이노베이션이 자체 개발한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BMR)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섰다.

SK이노베이션은 16일 포르투갈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 리튬·배터리 원소 재 컨퍼런스 ‘패스트마켓 컨퍼런스’에서 미국 엔지니어링 기업 KBR과 BMR 기술 라이선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KBR은 전 세계 80여 개국에 3만4000명의 임직원을 두고 연매출 약 70억 달러를 기록하는 에너지·석유화학·국방·산업 인프라 전문 엔지니어링 기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KBR은 SK이노베이션의 BMR 기술과 자사의 고순도 결정화 기술(PureLi)을 결합해 글로벌 시장에 판매하고, SK이노베이션은 이를 통해 로열티 수익을 확보할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은 2017년부터 정유·석유화학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리튬 회수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배터리 재활용 기술 개발을 추진해 왔다.

/원관희 기자 wkh@

“경제협력 넘어 지속가능 미래해법 모색”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한-호주 경제협력위 공동회의 참석
산업안전·재난 대응 의제 첫 논의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한국과 호주 양국이 경제산업 투자 확대를 넘어 지역 상생과 산업안전 재난대응까지 핵심 협력 분야의 외연을 넓히고 연대를 강화해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해법을 함께 모색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 제46차 공동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장 회장은 한국 측 위원장 자격으로 공동회의에 참석, ‘한-호주의 산업·혁신·지속가능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양국의 시대적 과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고 연대를 다졌다.

이날 공동회의에서는 핵심 광물 공급망, 청정에너지, 인공지능(AI) 생태계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17일 개최된 공동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

혁신을 비롯해 산업안전 및 재난 대응 등 5개 분야의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AI 기반의 산업안전 및 재난 대응’을 특별의제로 상정해 새로운 협력 모델을 모색하는 등 양국 협력 분야의 외연을 한층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포스코그룹은 산업안전 및 재난 대응 세션에서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 사회공헌사업 계획을 소개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현대차·기아, 스마트공장 무선통신 기술 공개

와이파이7 로봇 운영 효율성 강화

현대자동차·기아가 수백대에 달하는 로봇이 투입되는 스마트 공장이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게 하는 최첨단 무선 통신 기술을 공개했다.

현대차·기아는 2026년 국내외 공장에 와이파이7(WiFi-7)을 도입하기 위한 통합형 단말기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와이파이7은 와이파이6E보다 채널 대역폭이 2배로 확대되고 변조·스트리밍 방식 등을 개선해 속도가 기존보다 최대 4.8배 빨라질 수 있는 차세대 표준이다.

와이파이7이 도입되면 로봇 수백대가 투입되는 현대차·기아의 생산 공정이 보다 효율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현대차·기아 공장에 있는 다양한 생산 로봇은 물론 공장 내에서 부품을 운반하는 AGV(Automated guided Vehicle·무인운반차) 및 AMR(Automate

d Mobile Robot·자율이동로봇)과 같은 물류 로봇, 위험 요소를 탐지하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스팟(SPOT)’ 등 무선 통신 기반의 다양한 첨단 로봇의 운영도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현대차·기아는 와이파이6와 프라이빗 5G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무선 연결 단말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현재 현대차 울산공장과 미국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 A)에 적용하고 있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로봇들은 단순히 정해진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정확한 시점에 정확한 동선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선 통신 안정화 기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차·기아는 단말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협력사에 핵심 기술을 공개해 공동으로 개발하는 등 상생을 도모하기도 했다.

/양성운 기자

ABC 영역 등 혁신기술 전시… “‘한국판 유레카 파크’ 육성”

(AI·바이오·클린테크)

LG ‘슈퍼스타트 데이 2025’

32곳 스타트업 주요 성과 발표
로봇 등 미래 기술 방향성 모색
우주산업 실증 내용 최초 공개

LG가 한국판 유레카 파크(CES 스타트업 전시존)’를 열고 미래 기술의 방향성을 모색한다.

LG는 17,18일 이틀간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스타트업 발굴·육성 행사인 ‘슈퍼스타트 데이 2025’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LG의 미래 사업 ABC(AI, 바이오, 클린테크)는 물론 로봇, 우주산업, 사이버 보안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혁신 기술이 한자리에 모인다.

‘슈퍼스타트 데이’는 2018년 LG의 R&D 혁신 기지인 마곡 LG사이언스파크



슈퍼스타트 데이 2025에서 LG 직원들이 LG의 카메라 모듈, 배터리 셀, 통신 모듈용 안테나가 탑재된 무인탐사연구소의 달 탐사 로버에 대한 설명을 듣고있다. /LG

출범과 동시에 시작된 스타트업 육성·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다. 지금까지 글로벌 참가객이 30개국, 3만 명에 달할 정도로 LG는 물론 벤처캐피털(VC)·액셀레이터(AC)·대학 등과 협업을 도

모할 수 있는 기술 교류의 장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번 슈퍼스타트 데이에 참여 의사를 밝힌 업체는 1800여 곳에 이른다. LG는 이중에서 약 8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

발된 22개의 스타트업과 이미 LG와 협업을 진행 중인 10곳의 육성 스타트업까지 총 32곳의 주요 성과를 발표한다.

올해 전시에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로봇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들이 대거 늘었다. ▲로봇 팔 영역에서 미국 등 5개국의 특허를 보유 중인 ‘코라스로보틱스’가 대표적이다.

구광모 (株)LG 대표가 취임 후 미래 사업으로 점찍은 ABC 영역의 기술 전시도 두드러진다. ▲‘넥스트 엔비디아’로 평가받는 ‘망고부스트’는 DPU(데이터 처리 장치) 기반 네트워킹 솔루션 설계 기술을 알린다. AI 데이터센터가 늘어날수록 네트워크 최적화를 위한 ‘DPU 설계’ 기술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LG는 ‘슈퍼스타트 데이 2025’에서 국내 유일의 달 탐사 로버 R&D 스타트업

‘무인탐사연구소’와 함께 추진하는 우주산업 실증 내용도 최초로 공개한다. 오는 11월 누리호 4차 발사에 탑재 예정인 카메라 모듈, 2026년 6월 누리호 5차 발사에 들어가는 배터리 셀, 통신 모듈용 안테나 등이다.

이밖에 올해 전시에는 우주산업 내 여러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기술 협력을 모색한다.

정수현 LG사이언스파크 대표는 “스타트업의 창의적 혁신과 자유로운 도전, 변화를 만들어가는 ‘슈퍼스타트 데이’는 융합 R&D 기지인 LG사이언스파크의 핵심 오픈이노베이션 행사”라며 “앞으로 ‘슈퍼스타트 데이’가 한국판 ‘유레카 파크(CES의 스타트업 전시존)’처럼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송치영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제외해야”

소상공인연합회장 취임 1주년 간담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반대입장 밝혀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송치영 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단기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까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에 소상공인들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고용 문제에 있어선 노사 양면이 있는 만큼 반드시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 의무화 ▲2년 이상 근무 시 무기계약직 의무 전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송 회장은 “주 4.5일제 도입도 논의 중인데 4.5일제를 한다고 하면 반드시 주휴수당도 폐지해야한다”면서 “식당은 브레이크 타임이 있고, 미용실에 손님이 없으면 쉬기도 하는데 일반기업에서나 지킬 수 있는 고용형태를 소상공인에게까지 강제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였다.

송 회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5대 핵심 과제’로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을 비롯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현장감 있는 정책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설립 ▲소상공인 정책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한 허브 역할 강화 ▲소상공인 디지털 및 AI 전환 구축 선도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반대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1순위로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꼽았다.

송 회장은 “현행 법적 체계로는 소상공

공인 복지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고 이런 이유로 소상공인 복지에 대한 법률 마련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이에 따라 소상공인기본법에 기반한 후속입법으로 소상공인복지법을 제정하고,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관련 법률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기준 보수액(1등급:월 182만원) 이하 소득을 버는 소상공인에 대해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보험액 전부를 내주는 등 지원을 강화해야한다는 것이다.

송 회장은 연합회 내에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설립 의지도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 상권 빅데이터 센터, 생애주기별 정책, 민관거버넌스, 정책연구소 등을 마련해 소상공인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씽크탱크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소상공인 정책연구소를 통해 중앙-지방-소상공인간 빅데이터를 근거해 정책을 집행하고, 소상공인 현황 파악 등 조사·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설치하는 등 소상공인 정책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

금호석유화학, 환경경영 시스템 고도화

CCUS 기술 도입·폐기물 감축 활동
“주요 계열사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금호석유화학그룹이 환경 경영 내실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

17일 금호석유화학에 따르면 그룹은 지난 7월 발전 설비에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도입해 배기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선택적으로 포집하고, 이를 K&H특수가스의 처리 과정을 거쳐 드라이아이스와 식음료용 탄산 등 유용한 화학물질로 전환하는 설비를 가동 중이다. 이 공정은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부가가치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금호석유화학은 국가 순환경제 정책에 맞춰 폐기물 감축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기업의 자원 순환 노력을 평가하는 국제 지표인 ‘폐기물 매립제로’에서 골드 등급을 획득한 여수 제2에너지는 발전소 보일러에서 발생한 연소재를 재활용해 올해 인증을 갱신했으며 여수 제1에너지도 신규 인증을 받는다. 그룹은 앞으로 인증대상을 점차 확대해 자원 순환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계열사들도 설비 투자를 통해 환경 경영을 고도화하고 있다. 금호피앤비화학은 여수 1·2공장 플레어스택(가스 소각용 설비)에 발열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

해 비상 상황 대응 능력을 높였고 광양물류센터에는 대기방지시설 사물인터넷(IoT)을 설치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인하기를 위한 컨설팅과 설비 보강을 진행 중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CHP(큐멘 과산화수소) 설비에 가연성 가스감지기를 추가 설치해 사고 예방 체계를 강화했다.

금호미쓰이화학은 올 상반기 친환경 리사이클링 공정을 도입해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염소, 가성소다 등으로 환원해 재사용함으로써 원재료 자급률을 높이고 폐수 발생을 줄였다. 금호폴리켐은 생산설비 증설에 맞춰 RT O(축열식 열소산화장치)와 VCU(유증기 소각 설비)를 추가 설치해 대기오염 물질 처리 용량을 확대했다. 이외에도 원활한 폐수 방류를 위해 신규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배출량을 유동적으로 조절하고 비상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금호석유화학, 금호피앤비화학, 금호미쓰이화학, 금호폴리켐 등 주요 계열사들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

수입 승용차 시장, 하이브리드·전기모델 중심 친환경 재편

친환경차, 신규 등록 85% 차지

지난 20여년 사이 수입 승용차 시장이 내연 기관차에서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자동차로 재편된 것으로 분석됐다.

17일 한국수입자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 2003년에서 2025년 사이 국내에 판매하는 수입 승용차 브랜드는 16개에서 약 1.6배 늘어난 26개로 판매 모델 수 역시 170여 종에서 520여 종 이상으로 약 3배 증가했다. 국산 승용차 모델수가 120여종인 점을 고려할 때 수입차의 다양성이 소비자들의 선택지를 크게 확대시켰다.

게 확대시켰다.

지난 2003년에는 가솔린이 97.8%를 차지하던 수입 승용차 시장이 2025년에는 하이브리드(57.5%)와 전기차(27.8%)로 전체 신규 등록 차량의 85.3%를 차지하며 수입 승용차 시장이 완전히 재편됐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수입 승용차 친환경차(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라인업은 지난 8월 기준 22개 브랜드, 320여개 모델에 달한다.

친환경 키워드는 2000cc 이하 저배기량 차량과 전기차의 확대 흐름에서 읽을

수 있다. 배기량 변화를 살펴보면 2000cc 미만 차량 비중은 지난 2003년 18.7%에서 올해 8월 말 현재 42.5%로 크게 확대된 반면, 같은 기간 2000~3000cc 비중은 42.9%에서 25.5%, 3000~4000cc 23.2%에서 2.6%, 4000cc 이상은 15.3%에서 1.6%로 축소됐다.

차종의 경우 2003년에는 세단이 1만 6171대로 해당 연도 전체 신규 등록 수입 승용차 1만 9481대의 83.0%에 달했으나 올해 8월 기준으로는 42.8%로 크게 줄었다. 반면 2003년 17.0%였던 RV는 올해 들어 57.2%로 증가하며 과반수를 돌파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KAI

전자전 항공기 형상 공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서울 aT 센터에서 개최된 ‘2025 전자기전 워크숍’에 참가해 전자전 항공기(전자전기) 형상을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KAI는 방사청이 추진하는 1조 7775억 원 규모 한국형 전자전 항공기(Block-1) 체계개발 사업에 이달 초 제안서를 제출했고 이번 행사에서 국내 기술 기반의 원거리 전자전기(SOJ)를 공개해 미래 전장 환경을 주도할 핵심 역량을 선보였다.

KAI는 항공기 출력과 무게 중심, 냉각·전력 시스템 통합, 레이더 및 안테나



KAI 전자전기 사업 최종 제안 형상. /KAI

성능 극대화, 생존성 강화 등 전자전 임무 특성과 이번 전자전기 사업의 기본 플랫폼인 봄바르디어 G6500의 동체를 고려해 전자전 장비가 항공기에 완벽하게 통합되도록 전자전기를 설계했다.

/이승용 기자

G 그랜드침대

그랜드침대 매트리스 편안함이 다르다!



“작은 디테일까지 고려한 설계로, 깊은 숙면을 선사합니다”

G 그랜드침대

편안함의 전통, 그랜드침대의 품격으로 완성됩니다.

www.grandbed.com / Tel. 031-945-2233



동천·수지구청 더블 역세권… 강남·판교 이동 용이

수지자이 에디시온

GS건설

동천역에서 강남역까지 7개 정거장

GS건설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일원에 ‘수지자이 에디시온’을 내놓는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5층, 6개동 규모로 전용면적 84㎡~152㎡P 총 480가구로 조성된다. 타입별 일반분양은 ▲84㎡A 107가구 ▲84㎡B 38가구 ▲84㎡C 224가구 ▲84㎡D 70가구 ▲120㎡A 39가구 ▲144㎡P 1가구 ▲152㎡P 1가구 등이다.

수지자이 에디시온은 신분당선 동천역과 수지구청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판교와 강남 접근성이 좋다. 동천역에서 판교역까지 3개 정거장, 강남역까지 7개 정거장이면 도달할 수 있으며, 성남역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으로 환승하면 SRT 수서역까지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 분당수서간도시고속화도



로, 용인서울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도 잘 갖췄다.

교육환경으로는 풍덕초, 수지중, 수지고, 죽전고 등이 단지 가까이 위치해 있고, 수지구청역 일대에 밀집한 학원가 이용도 편리하다.

생활 인프라로는 신세계 사우스시티, 스타

필드마켓, 보정동 카페거리가 가까이 위치하고, 현대백화점 판교점도 차량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수지체육공원, 용인아르피아 체육공원 및 성북천 산책로도 가까이 위치하며, 수지구 보건소, 분당서울대병원 등도 이용 가능하다.

단지는 전 세대 84㎡ 이상의 중대형 타입으로 선보이며,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다. 일부 세대에 4베이(전면을 향한 방이나 거실의 수), 3면 발코니 구조를 적용해 개방감을 높였고, 최상층 펜트하우스도 공급된다. 또한 팬트리, 드레스룸 등을 적용해 수납공간과 공간 활용성을 높였다. 입주인 커뮤니티센터인 ‘클럽 자이안’에는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사우나, 독서실 등이 조성될 예정이며, 아파트 상층부에는 스카이라운지, 게스트하우스 등도 들어설 예정이다.

수지자이 에디시온은 견본주택 오픈에 앞서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67, 동천유타워 A동 101호에 홍보관을 운영 중이다.

동의대역 도보 이용… 특허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적용

힐스테이트 가야

현대건설

서면역 5분, 사상역 10분 이동

현대건설은 부산에서 ‘힐스테이트 가야’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부산진구 가야동 일원에 들어서며, 2개 블록에 나눠 총 48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1단지는 지하 6층~지상 36층, 3개동, 전용 84㎡, 406가구 규모며, 2단지는 지하 3층~지상 31층, 1개동, 전용 76~84㎡ 81가구다.

1단지의 타입별 가구수는 ▲84㎡A 203가구 ▲84㎡B 175가구 ▲84㎡C 28가구 등이다. 2단지는 ▲76㎡ 21가구 ▲84㎡D 30가구 ▲84㎡E 30가구 등이다.

단지는 부산지하철 2호선 동의대역을 도보로 이용가능한 역세권 입지다. 부산지하철 1·2호선 환승역인 서면역과 부산김해선·2호선 환승역인 사상역을 각각 5분, 10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또한 가야대로, 수정터널, 백양터널의 진입이 용이해 부산 전역으로 접근성이 높으며, 특히 수정터널을 통해서 북항 일대를 손쉽게 이동이 가능하다. KTX-이음열차인 중앙선(부전역~청량리역)과 동해선(부전역~강릉역)이 연달아 개통된 부전역이 위치해 서울 접근성과 광역교통망도 갖추고 있다.

단지는 반경 1km 이내에는 가야초, 개성중, 가야고 등을 포함한 초등학교 4곳과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이 위치해 있다. 또 부산의 최대 핵심 상권인 서면 상권이 인접했으며, 롯데마트 등의 대형마트와 개금골목시장, 가야시장 등 전통시장의 이용도 편리하다.

1단지에는 고급스러운 커튼월룩 외관 디자인이 적용됐으며, 남동·남서향 위주 배치로 채광 및 통풍 효과를 높였다. 1단지 지하층에는 세대창고가 별도로 마련돼 수납 편의성도 높였다.

전 가구에 현대건설의 특허 층간소음 저감 기술 ‘H 사일런트 홈 시스템’이 거실 및 주방에 적용된다. 이는 고성능 복합완충재 적용으로 걸거나 뒹 때 발생하는 소음 저감과 충격 흡수를 극대화한 바닥구조다. 입주민들이 단지에서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힐스테이트 입주민 전용 통합 플랫폼 ‘마이 힐스(my H LLS)’도 도입된다.

견본주택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일원에 마련될 예정이다.

6년만에 공급되는 사당동 신축

힐스테이트 이수역센트럴

현대건설

사당·동작역 인접… 서울 전역 이동 편리

현대건설은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일원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이수역센트럴’을 분양할 예정이다. 사당동에서는 6년 만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5층, 11개 동, 총 931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44~84㎡ 170세대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

일반분양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44㎡A 27세대 ▲44㎡B 8세대 ▲49㎡A 53세대 ▲49㎡B 22세대 ▲49㎡C 6세대 ▲59㎡A 4세대 ▲59㎡B 5세대 ▲74㎡ 5세대 ▲84㎡A 29세대 ▲84㎡B 4세대 ▲84㎡C 1세대 ▲84㎡D 6세대 등이다.

힐스테이트 이수역센트럴은 지하철 7호선 이수역과 4호선 충신대입구역역을 도보 5분대로 이용 가능한 더블 역세권 입지다. 지하철 1



정거장 거리에는 2·4호선이 인접해 서울 전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며, 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사당역도 인접해 있다.

교육환경으로는 남영초, 사당초, 사당중, 사당고 등 다수의 학교가 인접해 있으며, 생활 인프라로는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등도 인접해 있다.

부평·부천 더블 생활권… 서울 주요 입지 한번에 이동

두산위브&수자인 부평 더퍼스트

두산건설 컨소시엄

굴포천역 역세권… 공원형 단지 조성

두산건설은 BS한양과 컨소시엄을 통해 인천 부평구에서 ‘두산위브&수자인 부평 더퍼스트’를 공급한다.

단지는 부개동 일원에 부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들어선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13개동, 총 1299가구 규모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514가구다.

전용면적 타입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46㎡A 86가구 ▲46㎡B 13가구 ▲59㎡A 121가구 ▲59㎡B 135가구 ▲59㎡C 130가구 ▲74㎡A 12가구 ▲74㎡B 9가구 ▲74㎡C 8가구 등이다.

두산위브&수자인 부평 더퍼스트는 수도권 7호선 굴포천역 역세권 입지다. 가산디지털단지, 고속버스터미널역 등 서울 주요 입지까지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 가능하다. 1개 정거장 거리의 부평역에 GTX-B(예정) 노선이 계획돼 있어 향후 개통 시 서울 접근성은 더 개선될 전망이다. 인근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등을 통한 광역도로망 진입도 용이하다.

이와 함께 인근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

트, 현대백화점, 부평시장, 부평세림병원, 인천성모병원, 웅진플레이도시, 삼산월드체육관 등 부평과 부천의 주요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다.

교육환경으로는 도보거리에 개흥초, 부평초, 부평중, 부평고 등 다수의 학교가 있고, 삼산·상동 학원가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상동호수공원을 비롯해 부천영성문화단지, 청운공원, 신트리공원 등도 위치해 있다.

삼성물산의 차세대 주거 서비스 플랫폼 ‘홈니(HomeNic)’이 적용되어 입주부터 단지 생활 전반에 걸쳐 스마트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경험할 수 있다.

쾌적한 공원형 단지로 조성되며, 피트니스센터, GX룸, 실내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등 입주민 일상의 퀄리티를 높여줄 다채로운 커뮤니티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

견본주택은 사업지 부지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에 마련될 예정이다.

천안 첫 휴먼빌 브랜드 단지

천안 휴먼빌 퍼스트시티

일신건설

삼성대로 바로 맞닿아… 산단 접근 용이

일신건설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일원 부대2지구에 ‘천안 휴먼빌 퍼스트시티’를 선보일 예정이다. 천안에서는 처음으로 공급되는 휴먼빌 브랜드 단지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3층 12개동, 전용면적 84㎡, 총 1541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주택시장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은 전용 84㎡ 단일 평형으로 공급되며, 타입별 가구수는 ▲84㎡A 310가구 ▲84㎡B 275가구 ▲84㎡C 335가구 ▲84㎡D 621가구 등이다. 단지 일대는 성성지구·업성지구·부성지구 등과 함께 성성호수공원을 중심으로 2만5000여 가구 규모의 신흥 주거타운을 조성하는 곳이다.

천안 휴먼빌 퍼스트시티는 삼성대로와 바로 맞닿아 있어 삼성전자 천안캠퍼스 및 천

안제3일반산업단지 등 인접해 있다. 천안IC도 빠르게 접근 가능하며, 고속도로, 당진~청주, 천안~대전 등 주요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사당역도 인접해 있다.

단지 앞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다양한 교육시설이 인접해 있으며, 생활 인프라로는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등도 인접해 있다.



분양가 고공행진 집 마련 해볼까?

트 분양시장도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공급대책 실현까지는 시간
축 공급이 희소한 서울을 비롯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많은 수도권
과 교육, 생활인프라 측면에서 실거주 여건을 모두 갖춘 단지들이
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신축 아파트 공급이 빠르게 줄어드는 상황
“강도 높은 대출 규제까지 시행되고 전월세 시장도 불안하게 움직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축 단지... 4·7호선 도보 이용



선 사당역, 9호선 동작
을 이동하기 편하다. 강
경부고속도로 등의 도
당IC, 서초IC 등도 가
초초, 삼일초가 단지
지를 갖췄으며, 단지 반
사당중, 경문고, 서문
밀집해 있다.
데마트 서초점,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 홈플러스 남현점 등의 쇼핑시
설이 가까이 위치해 있으며, 대형 종합병원인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중앙대병원과
예술의전당, 국립국악원 등 의료 및 문화시설
이 위치해 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
롯해 손님 숙소나 파티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게스트하우스가 마련돼 있다.
건본주택은 서초구 양재동 일원에 마련될
예정이다.

지... 삼성캠퍼스 직주근접

도 빠르게 이동할 수
에 이용할 수 있어 경부
고속도로 등을 통한 광
가 신설될 예정이며,
중·고로 연결된다. 또한
학원가도 편리하게 이
TX천안아산역을 비롯
신세계백화점, 코스트

코, 이마트, 천안시청, 천안종합운동장 등 다
양한 인프라도 이용할 수 있다.
커뮤니티 시설은 지하2~3층 2개층 규모로 조
성되며, 지하 2층에는 로비 공간을 시작으로 라
운지 및 다이닝이 마련된다. 운동 뿐 아니라 다
목적 공간으로 사용 가능한 실내 체육관과 스터
디룸, 오픈도서관 등으로 완성도를 높였다.
건본주택은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에
들어설 예정이다.



구미 최초 하이엔드 아파트... 광역·도심 접근성 탁월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 두산건설

중앙로 등 주요 간선도로 진출입 편리

두산건설은 경북 구미시 광평동 일원에서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를 분양할 예정이다.
구미에서 처음 선보이는 하이엔드 아파트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9층, 9개 동,
총 137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일반분양은
403가구로 전용면적별로는 ▲59㎡ 26가구 ▲
74㎡A 8가구 ▲74㎡B 4가구 ▲84㎡A 18가
구 ▲84㎡B 113가구 ▲108㎡ 64가구 ▲152㎡
P 4가구 등이다.
교통 여건은 광역과 도심 이동의 균형이 강
점이다. 구미IC를 통해 중부내륙·구미대로축
접근이 수월하며, 사곡역(대경선)을 이용해
대구, 경산까지 이동할 수 있다. 중앙로·박정
희로·송정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 진출입이 편
리해 도심권 이동 시간이 짧다.
교육환경으로는 송정초·송정여중이 도보



권 내에 있으며, 광평중·금오고 등도 인근에
위치해 있다. 이와 함께 중앙근린공원과 구미
시민운동장이 가까워 공원·스포츠 생활권을
형성한다.
생활 인프라로는 송정동 핵심 상권과 롯데
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개소
와, 은행·카페 등 근린 편의시설이 밀집해있

다. 구미시청 등 관공서와 차병원, 문화예술
회관 등 의료·문화시설 접근성도 양호하다.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는 랜드마크형 옥탑
구조물과 커튼월로 디자인, 제니스만의 브랜
드 시그니처 패턴이 건물 외벽과 문주 등에 다
양하게 적용되어 외관 고급화를 극대화한다.
단지 배치는 개방감을 최우선으로 설계해
동 간 거리를 넉넉히 확보했으며, 채광과 조
망, 프라이버시를 동시에 강화했다. 동출입구
는 와이드형과 1층형으로 구성해 개방감과 보
행 동선을 개선했다.
세대 내부는 4베이 판상형(일부 타입 제외)
을 중심으로 알파룸과 드레스룸, 현관·복도 팬
트리, 다용도실 공간 분리를 적용해 수납력을
키웠다. 특히 특화 옵션 적용(예정)을 통해 입
주민의 스타일에 맞는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
스마트홈과 에너지 절감 설비도 강화했으
며, 주차대수는 1974대로 세대당 약 1.43대의
넉넉한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건본주택은 구미시 신평동 일원에 마련
된다.

분상제 적용 ‘아양택지개발지구’ 마지막 단지

안성 아양 금성백조 에미지 금성백조

안성·미양 등 산업단지 직주근접

금성백조는 경기도 안성시아양택지개발지
구 B2블록 일원에 짓는 ‘안성 아양 금성백조
에미지’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1층~지상 최고 25층, 8개 동,
전용면적 84㎡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57가
구 규모로 공급된다.
안성 아양 금성백조 에미지는 안성의 신주
거 중심으로 자리잡은 아양택지개발지구의
마지막 분양 단지다. 공공택지지지구로 체계
적인 도시계획에 따라 주거시설뿐 아니라 교
육·상업·문화·공원 등의 인프라가 들어 있어
서있다. 안성제1·2·3·4·5일반산업단지, 미양
농공단지, 미양2일반산업단지 등 다수의 산업
단지가 차량 10분대 거리에 밀집해 있어 직주
근접성도 확보했다.
단지 주변에는 백성초, 안성중(2027년 이전



예정), 고등학교 예정부지가 위치하며, 아양
도서관과 학원가도 가깝다. 이마트, 하나로마
트, CGV,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으며, 중심상업지구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교통환경으로는 단지 인근에 안성종합버스
터미널이 위치하고 있으며,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맞춤IC, 평택제천고속도로 남안성IC, 경
부고속도로 안성IC를 통해 서울을 포함한 수
도권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성도 우수하다.

2026년 말 개통 예정인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세종 구간이 완공되면 충청권까지의 이
동이 수월해지며, 평택~부활선과 경강선 안
성 연장 사업도 추진 중으로 향후 교통 여건은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아양택지개발지구는 공공
택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인근 시세 대
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될 예정이다.
건본주택은 경기도 안성시 옥산동 377-1번
지 일원에 조성될 예정이다.

신분당선 연장 호재... 대형마트·경기장 등 인프라 풍부

두산위브 더센트럴 수원 두산건설

강남 40분, 판교 20분대 소요 전망

두산건설은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수
원111-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일원에 조성하
는 ‘두산위브 더센트럴 수원’을 오는 10월 분
양할 계획이다.
단지는 지상 최고 29층, 6개동 556가구 규
모다. 이 가운데 27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전용면
적 기준 일반분양 물량은 ▲59㎡ 273가구 ▲84
㎡ 27가구로 실수요자 선호도 높은 중소형으로
공급된다. 오는 2029년 12월 개통목표로 공사
중인 신분당선 연장구간(광교~호매실)의 신설
예정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 주변에 생활
인프라가 풍부한 게 장점으로 꼽힌다.
단지에서 신분당선을 이용하면 서울 강남
역 및 사당역까지 40분대, 판교역까지는 20분
대로 예상된다. 단지 인근 예정역에서 각각 한



정거장 거리인 신분당선 연장구간의 화서역
은 수도권지하철1호선과 수원월드컵경기장
역에서는 인동선과 환승 예정이다.
주변에 생활편의시설도 많은 편이다. 수원
스타필드, 이마트트레이더스는 동서 방향으
로 각각 2.4km 떨어져 있으며 도보 거리에는
전통시장인 거북시장이 있다. 월드컵경기장
및 프로야구경기장도 단지에서 멀지 않다.
단지 동쪽으로 인접한 광교신도시의 생활

인프라를 이용하기에도 편리하다. 광고호수
공원은 5km 떨어져 자동차로 10분이면 이동가
능하다. 장안구에는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정
비사업이 예정돼 향후 주변 환경도 크게 개선
될 전망이다.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시설로 실내골프장
실내체육관 GX룸 샤워실 라커룸 북카페 작
은도서관 멀티룸 동호회실 등을 마련할 계획
이다.



ChatGpt로 생성한 '국가 간 전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은 가운데 올라가는 방산ETF 인기'를 표현한 이미지.

방산주 열풍, ETF 시장까지 확산 대형·레버리지에 유럽형까지 가세

순자산 1조3000억 대형 ETF 등장
소부장 중심 밸류체인 투자 확장
한투, 유럽 방산 대장주 ETF 상장
고평가 논란은 일시적 현상에 불과
군비 확대가 구조적 성장세 뒷받침

방산주 랠리에 힘입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도 투자 영역을 유럽·글로벌·소부장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순자산 1조3000억원 규모의 대형 상품이 등장했고, 레버리지·특화형 상품까지 더해지며 라인업이 한층 다양해졌다. 이달 말에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신규 진입을 앞두고 있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17일 KRX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방산ETF 시장은 한화자산운용의 'PLUSK방산' (순자산 1조3151억원)을 필두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K방산&우주' (3143억원),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TIMEFOLIO 글로벌우주테크&방산액티브' (1961억원) 등이 규모를 점차 키우고 있다. 최근에는 삼성자산운용이 내놓은 'KODEX K방산TOP 10레버리지'가 상장일 하루 만에 10.3% 수익률을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해당 ETF는 한국항공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 'K방산 빅4' 기업에 160% 비중을 집중 배분하며 방산 섹터를 통한 높은 수익률을 겨냥하고 중이다.

국내외 자산운용사들은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와 국방비 증액이라는 구조적 요인을 ETF 성장 배경으로 꼽는다. 특히 한화운용은 지난달 소재·부품·장비 업체에 집중하는 'K방산소부장 ETF'를 내놓으며 밸류체인 전반으로 투자영역을 확장했다. K2 전자 변속기 국산화에 성공한 SNT다이내믹스, K9 자주포 엔진을 공급하는 STX엔진 등도 포트폴리오에 포함됐다.

오는 23일에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이 'ACE 유럽방산TOP10'을 상장하며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선다. 해당 ETF는 라인메탈(Rheinmetall) 등 유럽 방산 대장주를 담는다. 남용수 한투운용ETF본부장은 "국내 ETF는 이미 다수 출시돼 차별화를 위해 유럽 방산 기업에 집중했다"며 "라인메탈은 독일 정부가 예산을 집중하고 공장 증설에 나서면서 유럽 내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EU 및 NATO 탄약 공동조달 계획 속에서 공급망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방산은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라, 유럽의 '재무장(Re-armament) 계획'이 본격화되면 ETF 시장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섹터가 될 것"이라며 "방산주는 고평가 논란이 있지만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남 본부장은 유럽 재무장 전략의 핵심으로 '바이 유러피안(Buy European)' 원칙을 꼽았다. 이는 유럽 내에서 생산된 무기와 부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조달 기준으로, 역대 방위산업의 자립도를 높이고 미국 등 외산 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것이다. 실제로 유럽연합은 국방 조달 시 유럽산 부품을 최소 65% 이상 사용하고, 생산시설을 유럽 내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도 "회원국들이 유럽연합 내 공급망에 완전히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역대 중심의 공급망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 다른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국내 방산주의 고평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군비 확대라는 모멘텀이 멈추지 않는 한 ETF 시장의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정운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코스콤, '원화 스테이블코인' 상표권 선점

사장 직속 '디지털자산TF' 운영

코스콤이 향후 본격화될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원화 스테이블코인 상표권 확보에 나섰다.

코스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 ▲KSDC ▲KRW365 ▲KOSWON ▲KORWON 등을 출원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업계 전반에서 스테이블코인 상표권 출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코스콤 역시 시장 변화에 발맞춰 기술적 준비에 들어간 것이다.

또한, 코스콤은 기존 미래사업부를 사장 직속 조직인 '디지털자산사업추진TF부'로 확대 개편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사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조직 위상을 높이고, 전사적 추진 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새롭게 확대된 TF는 스테이블코인 기술 검증(PoC)을 추진하며 자본시장 결제 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토큰증권 사업과 연계해 청약 및 유통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수단으로 도입하고, 결제 편의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을 단계적으로

개발·검증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자산 관련 연구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발간하며 시장 동향 분석과 산업·정책 생태계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최근 블록체인 관련 특허 1건을 추가 등록해 현재까지 총 4건의 등록 특허를 보유하게 됐다. 코스콤은 지적재산권 확보와 기술 검증을 병행하며, 디지털자산의 자본시장 도입을 위한 기술적 기반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김완성 코스콤디지털자산사업추진TF부 부사장은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하게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코스콤은 자본시장 IT 선도 기업으로서 스테이블코인이 확산되는 시장 흐름에 맞춰 디지털자산 시장 발전을 위한 다양한 기술 개발·연구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의 박사는 "국내 역시 자본시장 결제에 최적화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함으로써 결제의 신속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거래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검증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AI 기대감에 서학개미, '팔란티어' 집중

해외주식 Click

반도체 강세장에도 역배팅

지난주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주식을 사들였다. 반도체 지수 상승률에 역배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도 확대했다. 1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한 주(9월 9일~9월 15일까지) 서학개미들은 팔란티어를 1억 500만달러(약 1455억원) 가량 순매수했다. 지난주 오라클이 깜짝 실적을 발표해 글로벌 AI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AI 소프트웨어 기업 팔란티어는 지난 달 12일 사상 최고가 190달러를 기록한 이후 급락해 횡보세를 이어왔다. 특히 지난달 18일 미국 공매도 리서치 기관 시트론 리서치가 팔란티어의 주가가 고평가됐다고 지적하자 하루만에 10% 급락했다. 지난 9일부터 상승 전환해 6거래일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남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공매도 리포트로 주가가 하락했으나 팔란티어의 기초체력(펀더멘털)에는 변화가 없다"며 "AI 하드웨어에서 AI 소프트웨어 시대로의 트렌드 전환 국면에서 수혜가 예상되고 장기적으로 꾸준한 성장이 전망된다"고 짚었다. 팔란티어는 지난 7월 31일(현지시각) 미 육군과 향후 10년간 최대 100억달러(13조 8000억원) 상당의 장기 계약을 체결해 미 국방산업의 핵심 업체로 자리매김했다.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업체인 시놉시스(약 9730만달러)와 엔비디아(약 5460만달러)에도 투심이 기울었다. 다만 ICE 반도체 지수 하루 변동률을 3배 역으로 추종하는 '디렉시온반도체베어 3X ETF'(SOXS)도 약 8500만달러 순매수되며 서학개미들의 투심이 엇갈린 것이 확인됐다. 글로벌 AI 반도체 기업들의 연이은 호재가 매수심리를 자극하는 가운데 단기간 주가가 급등했을 때 통상 나오는 차익실현 매물을 경계한 모습이다.

/최건우 기자 geon@

한국거래소, 탄소시장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미국 익스팬시브와 MOU 체결
국내 탄소시장 개설·유동성 모색

한국거래소가 탄소시장 사업 부문 강화를 위해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글로벌 탄소 크레딧 거래소 운영사인 미국의 익스팬시브(Xpansiv)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탄소 크레딧 거래소는 탄소 감축 실적(크레딧)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자발적 탄소 시장(VCM)이라고도 불린다. 익스팬시브의 경우, 세계 최대 탄소 크레딧 거래 플랫폼인 CBL을 운영 중이다. 탄소크레딧시장(CBL) 시장의 거래종목을 기초로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서 탄소크레딧 선물에 상장돼 거래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MOU를 통해 글로벌 탄소시장 네트워크 확대, 한국거



(왼쪽부터)정보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존 멜비 익스팬시브 최고경영자(CEO)가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탄소시장 사업부문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래소와 CBL간 연계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 향후 탄소크레딧 시장 개설

시 해외 기관의 유동성을 국내로 공급해 시장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탄소 크레딧 수요 기업이 한국거래소의 플랫폼을 이용해 우수한 품질의 해외 탄소 크레딧을 편리하게 매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프라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정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이날 체결식에서 "한국거래소는 아시아 최고의 탄소 시장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글로벌 탄소 크레딧 시장을 운영하는 익스팬시브와 다양한 측면에서 협업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존 멜비 익스팬시브 최고경영자(CEO)는 "기업 등의 에너지 전환 목표를 지원할 'KRX 탄소 크레딧 시장' 개설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함께 일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신하은 기자

gift

추석 마중

추석선물 사전예약
감사의마음을 전합니다

산지직송으로 **능수한우암소세트** 제품과
프리미엄 솔트에이징 육류, **프리미엄 과일** 까지
명절전물세트의 모든 것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가스공 “공공부문 AI 대전환 선도” AI 기반 천연가스 공급시스템 구축

공급분야 AI 활용방안 기술 교류회
정부 ‘AI 3대 강국 도약’ 전략 대응
4개분야 추진과제, 사례 등 공유

한국가스공사가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 전략에 발맞춰 인공지능(AI) 기반 천연가스 공급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섰다.

가스공사는 지난 15~16일까지 이틀간 대구 본사에서 ‘2025년 공급 분야 AI 활용방안 기술 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류회에는 본사와 전국 9개 지역본부에서 실무 전문가가 약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천연가스 공급시설에 대한 AI 기반 스마트 공급 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가스공사는 AI 디지털 대전환 시기에 발맞춰 지난 2023년부터 유인 공급관리소 28곳을 무인 운영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해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성과를 냈다.

이어 올해는 공급설비 유지보수, 천연가스 주배관 관리 등 공급 업무 전 분야로 범위를 확대해 AI 스마트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



최연태 한국가스공사 사장(왼쪽에서 여섯번째)과 임직원들이 지난 15~16일 대구 본사에서 ‘2025년 공급 분야 AI 활용 기술 교류회’를 개최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가스공사

이번 교류회에서 참석자들은 운영·보수·관로·안전 등 4개 분야별 추진 과제와 타사 벤치마킹 사례를 공유하고, 공급 분야에 대한 AI 활용 방안 발굴을 위해 열띤 토의를 이어갔다.

특히 ▲AI를 활용한 무인 운영 시스템 고도화 ▲가스 공급설비 예지보전 스마트 플랫폼 활용 ▲객체 인식 시스템 도입을 통한 천연가스 주배관 관로 순찰 ▲AI 기반 ILI(In-Line-Inspection) 데이터 분석 구축 등 공급 분야 핵심 사업에 대한 AI 활용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가스공사는 추후 심의회를 통해 AI 연계성, 파급성, 실현 가능성 등 여러 측면에서 최적의 아이디어를 선정 및 검토해 실제 사업 진행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인공지능과 스마트 시스템을 천연가스 공급 업무 전반에 적극 활용해 효율성과 안전성을 혁신함으로써 공공 부문의 AI 대전환을 가장 먼저 이끌고 정부 정책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에너지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남부발전, 양수발전 기자재 국산화 초석 다져

두산에너지빌리티와 ‘맞손’
안정적 공급망 구축 추진도

한국남부발전은 두산에너지빌리티와 지난 16일 분당두산타워에서 ‘양수발전 기자재 국산화 상호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확대되는 양수발전 사업에 대비하고, 핵심 기자재 설계·제작 기술 자립을 목표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남부발전은 향후 건설 예정인 양수발전소를 실증 테스트베드로 제공하고, 국산 기자재 판로 개척도 지원한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그간 축적한 발전 기자재 설계·제작 노하우를 활용해 양수발전 핵심 기술 확보에 속도를 낸다. 양 사는 단순 기술 자립을 넘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까지 협력함으로써 국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왼쪽에서 여섯번째)과 정연인 두산에너지빌리티 부회장(왼쪽에서 일곱번째) 등 양사 임직원들과 지난 16일 ‘양수발전 기자재 국산화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부발전

기여할 계획이다.

양 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단순히 ‘기술 자립과 국산화’ 뿐만 아니라, 국산화된 기자재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양수발전 기자재 핵심 기술의 자주적 확보를 가속화하고, 국내 기술 경쟁력을 제고해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은 “국내 양수발전 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이 기술 자립과 국산 기자재 활용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내 기술력과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미래 에너지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정연인 부회장은 “최근 양수발전 건설이 늘어나며 주기기 설계 및 제작 기술 자립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실증 환경을 제공한 남부발전과 협력을 통해 국산화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사업 부정행위 적발

환경부, 관리 부실·보조금 횡령 등 확인

전기차 지원을 받는 사업자 중 정부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충전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한 사례 등이 당국의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17일 국무조정실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

업’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충전기 관리 부실 ▲부적절한 사업비 집행 ▲보조금 횡령 등의 위법·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환경부와 함께 관련 지원사업 운영 실태를 합동 점검했다. 이 지원사업은 지난 2021년

부터 2023년까지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실시한 바 있는 충전시설 설치 사업이다.

점검 결과 충전시설 관리 부적정 사례가 2만4000여 기로 집계됐다. 또 부적정한 사업비 집행(도합 97억7000만원), 보조금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사례(도합 121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정부는 집행잔액 반납·미작동 충전기 점검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내년 농지은행 정부 예산안 2.4兆 확정

농어촌공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 중인 농지은행사업의 내년 정부 예산안이 2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청년 농업인 인재 육성을 위한 3개 사업이 중점적으로 확대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다.

농어촌공사는 상속·이농 등 비농업인과 고령·은퇴농이 보유한 우량 농지를 매입한다. 이를 통해 청년 농업인에게 낮은 임대료로 지원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에 1조6000억원을 투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2025년 대비 약 68% 증가한 수준이다. 청년 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하는데 큰 어려움으로 꼽히는 농지 확보를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청년 농업인이 원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한 뒤 매도를 전제로 최장 30년간

장기 임대·매도하는 ‘선임대후매도사업’에 770억원이 반영됐다. 올해 대비 578억원 증액해 약 300% 증가했다. 청년 농업인의 농지 구입 부담 완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시설 영농을 선호하는 청년 농업인 수요에 맞춰 스마트팜 지원도 확대한다. 공사 보유한 농지에 스마트팜 시설을 조성해 임대하는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에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75억원을 투입해 15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어촌공사의 정인노 부사장은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예산 확보와 더불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2026년 농지은행 사업의 차질 없는 집행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농식품부, 6개 군에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내달 13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군 모집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군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9월29일부터 10월13일까지 접수 받은 뒤 10월 중순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위기, 지역 간 격차 심화 등 국가적 문제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소멸 위험이 큰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대상 사업 신청을 접수한 후 지역여건 및 추진의지 등에 대한 평가를 거친다.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한다. 이 밖에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군은 거주 중인 모든 주민에게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개인당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이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기 농어촌지역에 남아 지역 자립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

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한 보상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또 기본생활 유지를 돕는 체감 가능한 정책 수단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농식품부와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동사업이 현금성·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는다.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돼 지역경제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 등 해당 지역의 활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노력을 적극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사업 대상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이를 통해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본사업 방향도 검토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말했다.

또 “소멸 위기 농어촌지역 주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 간 격차 해소 등을 통해 균형성장을 견인해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공정위, ‘후원판매’ 위장 다단계 영업 제재

울포레코리아에 시정명령·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후원방문판매업체(㈜울포레코리아)의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울포레코리아는 화장품·건강식품을 주로 판매하는 업체로, 매출액은 약 19억원, 판매원 수는 4600명에 달한다. 회사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만 등록한 상태에서 사실상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을 전개했다.

현행법상 후원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는 유사한 구조를 띠지만, 수당 지급 범위에 차이가 난다.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의 실적이 직속상위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주는 구조다. 반면 다단계판

매는 다수 단계로 이어져 수당이 분배되며, 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 후원방문판매업자는 자본금 요건이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의무 등이 면제되지만, 후원수당 지급 단계가 1단계를 넘아가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울포레코리아는 ‘플래너-매니저-디렉터-마스터-지사장(점장)’ 등 3단계 이상 판매조직을 구성하고, 지사장 또는 점장에게 산하 판매원 전체의 실적과 연계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이는 전형적인 다단계 영업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후원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K푸드 인기에 몸집 키우는 식품업계

공장증설·해외인재 확보 속도전

CJ그룹, 삼양식품, BBQ, 롯데
신입사원·국내외 경력직 모집

농심·삼양식품·오리온
각각 부산·밀양·진천 공장 건립

K푸드 인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국내 식품·외식업계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재확보와 공장 증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CJ그룹, 삼양식품, BBQ, 롯데 계열사 등은 최근 대규모 채용에 나섰다. CJ그룹은 오는 24일까지 CJ제일제당을 포함한 9개 계열사에서 신입사원을 공개 모집 중이며, 식품·식품서비스 부문이 주축이다. 내년 1월 제주도에서 입문교육을 거쳐 본격 근무에 돌입한다. 동시에 CJ제일제당은 글로벌 인수합병(M&A)과 브랜드 전략 경력자를 모집하며 해외 식품사업 확장에 필요한 인재를 확보 중이다.

CJ푸드빌은 신규 사업 기획을 담당할 브랜드전략팀장과 마케팅 매니저 등 경력직을, CJ프레시웨이는 공급망 관리(SCM)와 고객 서비스 개선을 맡을 신입·경력 인력을 찾고 있다.

삼양식품은 중동 시장을 공략할 13

년 이상 경력의 해외영업 팀장급을 모집했다. 최근 최고경영책임자(CSO) 직책을 신설한 데이온 후속 조치다. 해외법인 감사를 맡을 글로벌경영진단팀 인력도 긴급 채용 중이다.

제너시스BBQ도 글로벌·국내 사업부에서 경력직을 모집중이며, 미국·캐나다·필리핀 등 57개국 해외 매장 관리와 메뉴 기획, 디자인 업무를 담당할 인력도 선발한다. 롯데웰푸드와 롯데GRS도 30여 개 직무에서 신입사원을 수시 채용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식품업계 채용은 단순 총원이 아니라 글로벌 성장을 겨냥한 전략적 투자”라며 “해외 시장 확대 경쟁 속에서 우수 인재 확보가 기업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용과 더불어 국내 생산시설 투자도 활발하다. 특히 라면 업계는 해외에서도 공장을 가동하고 있지만 수출 물량 증가에 따라 국내 공장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농심은 부산 녹산에 라면 수출 전용 공장을 건설 중이다. 연간 5억 개의 라면을 추가 생산할 수 있으며, 기존 시설과 합쳐 총 생산능력은 연 12억 개에 달한다. 이는 글로벌 수출 물량 증가에 대

응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다.

삼양식품은 지난 6월 경남 밀양에 2공장을 완공했다.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갖춘 이 공장은 연간 최대 8억 3000만 개 라면을 생산할 수 있다. 불닭볶음면 인기로 수출 수요가 폭증한 데 따른 조치다.

철저한 현지화 전략으로 실적 고공행진 중인 오리온도 올해 국내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오리온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달 충북 진천 통합센터 착공에 들어갔다. 센터는 축구장 26개 크기인 18만8000㎡ 부지에 연면적 14만 9000㎡ 규모로 건설된다. 생산, 포장, 물류까지 연결된 원스톱 생산기지다. 2027년 준공되면 국내 생산능력은 기존 1조9300억 원에서 2조3000억 원 규모로 늘게 된다. 진천 통합센터 건설로 늘어나는 생산능력은 대부분 현지 생산기지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지역의 수출 물량을 대응하는 데 활용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식품업계가 채용을 확대하고 공장을 증설하는 이러한 모습은 K푸드 열풍이 단순 유행을 넘어 산업 전반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더핫 열라면’ 200만개 판매 오뚜기, 출시 3주만의 성과

영양군과 맞손 ‘영양고추’ 담아
기존 열라면 보다 1.5배 매워져

오뚜기는 지역상생 가치를 반영한 신제품 ‘더핫 열라면’이 출시 3주 만에 누적 판매량 200만 개를 돌파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더핫 열라면’은 인구소멸 위기지역인 경상북도 영양군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지역 특산물인 ‘영양고추’를 듬뿍 담아낸 제품이다.

기존 ‘열라면’보다 약 1.5배 매워진 강렬한 맵기와 깔끔한 뒷맛으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도파민이 터진다”는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별도의 TV 광고 없이 제품력과 입소문만으로 달성한 성과라 더욱 의미가 크다.

오뚜기는 이번 인기에 힘입어 ‘더핫 열라면 용기면’을 새롭게 선보였다. 간편성과 휴대성을 강화한 이번 제품은 MZ세대의 니즈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영양고추의 우수성을 알리는 새로운 판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핫 열라면 용기면’은 현재 전국 편의점에서 만나 볼 수 있다.

또한 오뚜기는 다양한 소비자 참여형 프로모션으로 브랜드 경험을 강화하고 있다. 오는 10월 31일까지 ‘더핫 열라면과 함께 HOT영양으로 떠나



더핫 열라면.

/오뚜기

자!’ 이벤트를 진행하며, 제품 구매 또는 취식 사진을 SNS에 인증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영양군 한옥 숙소 숙박권과 5만 원 상당의 영양사랑상품권을 증정한다.

아울러 최근 공개된 ‘오뚜기X영양군Xwing(DOPAMINE)’ 광고 영상과 연계한 댓글 이벤트도 같은 기간 운영된다. 영상 게시물에 댓글로 친구를 소환한 참여자에게는 영양군 관광정보가 담긴 NFC 키링과 더핫 열라면 멀티팩 1개를 제공한다.

지역 상생 활동도 활발하다. 지난달 25일 행정안전부·영양군과 MOU를 체결한 이후, 29일 서울시장 광장에서 열린 ‘영양고추 H.O.T 페스티벌’ 참가, 9월 12~14일 용산역 지역상생 팝업스토어 운영 등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활동을 통해 ‘더핫 열라면’과 영양고추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있다.

/신원선 기자

CJ제일제당, 플라스틱 대체 PHA 화장품용기 개발

코스맥스와 업무협약 체결

CJ제일제당이 생분해성 바이오 소재 ‘PHA(Polyhydroxyalkanoates)’ 상용화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코스맥스와 ‘PHA 적용 화장품 용기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PHA는 미생물이 식물 유래 성분을 먹고 자연적으로 세포 안에 쌓는 고분자 물질로 산업·가정 폐비화 시설은 물론 토양과 해양에서 모두 분해되는 특성이 있다. 미세플라스틱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석유계 플라스틱을 대체할 차세대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CJ제일제당은 2022년 PHA 상업생산을 시작하며 이를 생분해 소재 전문 브랜드 ‘PHACT’로 론칭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친환경 화장품 용기 개발 및 확산을 위해 손을 맞잡는다. CJ제일제당이 ‘PHACT’ PHA를 적용, 화장품 용기에 적합한 물성의 소재를 개발해 공급하면 코스맥스가 이



16일 성남시 코스맥스 판교 사옥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서 정혁성 CJ제일제당 BMS본부장(오른쪽)과 강승현 코스맥스 R&I유닛장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는 모습. /CJ제일제당

를 활용해 각종 화장품 용기와 포장재를 개발하는 방식이다.

또한 업계 박람회 등에 양사가 함께 참가해 ‘PHA 적용 화장품 용기’를 알리고, 나아가 글로벌 뷰티 브랜드들에게 사용을 제안하는 등 PHA 확산을 위한 공동 마케팅도 추진할 계획이다. PHA 분야 글로벌 선두 업체인 CJ제일제당과 세계 1위 화장품 ODM 기업인 코스맥

스가 협업하게 되면서 PHA 상용화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성남시 코스맥스 판교 사옥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정혁성 CJ제일제당 BMS(Biomaterials)본부장과 정무영 BMS사업운영담당, 강승현 코스맥스 R&I(Research & Innovation) 유닛장, 김정겸 R&IPS(Package Science)랩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신원선 기자

BAT로스만스 ‘글로’ 컬러뱃지 이벤트

‘컬러 아워 유니버스’ 영상 공개

BAT로스만스의 궤런형 전자담배 브랜드 글로(glo™)가 2025년 브랜드 캠페인 ‘리브 라이프 인 컬러(Live Life in Color)’의 일환으로 글로 컬러 뱃지 이벤트 ‘컬러 아워 유니버스(Color Our Universe)’ 영상을 공개하고 참여형 미션

을 통해 브랜드 경험을 본격 확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글로 공식 홈페이지 ‘디스커버글로(discoverglo)’에서 12월 29일까지 진행된다. 소비자는 ▲회원가입 ▲글로 픽(glo PICK) 퀴즈 ▲제품 구매 ▲설문 참여 등 총 7단계 미션을 수행하며 컬러 유니버스를 완성하고, 단계별

미션을 달성할 때마다 뱃지를 획득할 수 있다. 모든 뱃지를 수집한 참여자에게는 총 1700만원 상당의 푸짐한 경품 응모 기회가 주어진다. 시즌 2 경품은 소비자의 관심사와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프리미엄 아이템으로 구성됐다. LG 스탠바이미 2, 드롭키 전자동 커피머신, 플레이스테이션 5 프로, 애플워치10 등 가전제품은 물론 고춧가루, 배달의 민족, 신세계 상품권, 프렌즈스크린 기프트카드 등 실용적인 상품도 마련했다.

/신원선 기자

롯데백화점, 알리·위챗페이 할인혜택

외국인 고객 맞춤형 프로모션 강화

롯데백화점이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과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외국인 고객 맞춤형 프로모션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중화권 고객이 선호하는 모바일 간편결제 할인 혜택을 집중적으로 마련했다.

롯데백화점은 이달 19일부터 알리페이로 1000위안 이상 결제 시 30위안을 즉시 할인해주고, 25일부터는 위챗페이로 800위안 이상 구매 시 40위안 할인 쿠폰을 증정한다. 또한 위챗페이로 삼성물산 패션 브랜드 구매 시 5% 즉시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외국인 관광객 전반을 위한 혜택도 늘렸다. 본점, 잠실점, 부산본점, 광복점, 김포공항점 등 5개 주요 점포에서 외국인 선불카드 ‘와우패스’로 10만원 이상 결제 시 5%를 환급해준다. 이달 26일부터는 전점에서 패션·뷰티 상품군을 30만원 또는 60만원 이상 구매한 외국인 고객에게 10% 상당의 롯데상품권을 증정한다.

이 외에도 롯데백화점은 개별 여행객을 공략하기 위해 중국 SNS 플랫폼 ‘샤오홍슈’ 공식 계정을 개설하고, 외국인 유학생으로 구성된 ‘글로벌 서포터즈’를 출범시키는 등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쿠팡, 내달 6일까지 제수용품 등 최대 50%

대규모 할인행사 ‘추석 페스타’

쿠팡이 추석맞이 다음 달 6일까지 대규모 할인 행사 ‘추석 페스타’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선물세트, 명절 음식, 가전, 제수용품 등 3만여 개 상품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이번 행사는 고객 쇼핑 편의를 위해 메인 특가, 선물관, 장보기관, 연휴 즐기기, 브랜드 데이 등 5가지 테마관으로 구성됐다. ‘선물관’에서는 가격대와 품목별로 선물세트를 제안하고, ‘장보기관’에서는 차례상 준비에 필요한 식재료와 제수용품 등을 판매한다. ‘연휴

즐기기’ 코너에서는 숙박 상품과 테마파크 이용권 등을 할인된 가격에 내놓는다.

매일 오전 7시부터는 ‘브랜드 데이’를 열고 AHC, 샤넬 등 40여 개 브랜드 상품을 하루 특가로 선보인다. 또한 ‘추석 트렌드 및 신상템 특가’ 코너를 신설했으며, 매주 목요일에는 레저·테마파크 이용권을 100원에 선착순 판매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대표 상품으로는 ‘스팸 12C호 선물세트’, ‘정관장 홍삼진 데일리стик 선물세트’, ‘삼성전자 갤럭시 S25 자급제’ 등이 준비됐다.

/손종욱 기자

2034년 글로벌시장 규모 356억 弗 중독치료제 선점 ‘신약’ 개발 총력

인벤티지랩 치료제 ‘IVL3004’
임상1상서 시판약 보다 우위 확인

아피메즈 미국법인 ‘아피톡스’
골관절염 환자 임상3상 마무리

마약성 진통제, 알코올 등으로 인한 약물 중독이 국내외 보건 사회에서 화두가 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글로벌 중독 치료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산 치료제’ 개발에 적극 나선다.

17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약물전달 기술 플랫폼 기업 인벤티지랩은 국내 유일 1개월 지속형 약물중독 치료제 ‘IVL3004’을 개발하며 중독 치료의 가능성을 높인다.

IVL3004는 나트렉손 성분의 주사제로, 인벤티지랩이 독자 구축한 약물전달시스템 기술이 집약된 혁신 의약품이다. 임상 1상에서 동일 성분의 기존 시판 약 비비트를보다 우수한 차별적 우위가 확인됐다.

임상 1상 결과, IVL3004의 안전성, 내약성이 입증됐고 대부분의 이상반응은 경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대한 이상반응, 사망, 치료 중단 사례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IVL3004 투여군에서 주사 부위 부작용 지속 기간이 3.8일 및 4.9일로 집계됐다. 이는 비비트를 투여군이 18.2일을 기록한 데 비해 현저히 짧은 기록으로 약물 안전성이 크게 개선됐다.

환자 내약성과 편의성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했다. IVL3004는 지속

방출 특성을 갖춰 혈중 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비비트를 투여군(대조군) 대비 용량을 30% 줄인 IVL3004 300mg(저용량군)에서 대조군과 유사한 약물 흡수도가 유지된 것도 특징이다.

또 초기 약물 과방출이 없는 우수한 약동학적 프로파일이 규명돼 충분한 전신 약물 노출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인벤티지랩은 글로벌 치료제와 경쟁 가능한 국산 신약 포트폴리오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공공 치료제를 구축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김주희 인벤티지랩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마약중독 치료의 현황과 국가 주도 치료제 확보 필요성’ 세미나에 참석해 “마약 중독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공중 보건 과제로 공공 치료제와 국가 주도의 시스템 없이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표는 “IVL3004는 중독 치료제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며 장기지속형 주사제인 만큼 환자의 복약 순응도를 높임으로써 재범 및 재발 예방에도 효과적으로 쓰일 것”이라며 “향후 국가적 필요성과 연계해 글로벌 선도 입지를 다지겠다”고 말했다.

인벤티지랩은 지난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 ‘바이오헬스 투자인프라 연계형 R&D’ 과제를 수행해 IVL3004를 개발해 왔다.

비보존제약 관계사 비보존은 기존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코카인 등

으로 인한 중독을 치료하기 위한 국산 신약 개발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해당 과제에 대해 미국 연방 연구 기관에서 과학적으로 검증받아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다.

인스코비자회사아피메즈미국법인은 천연물 기반의 비마약성 치료제 ‘아피톡스’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현재 미국에서 골관절염 치료제 ‘아피톡스’ 임상 3상을 추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9년 일반 골관절염 환자에서 아피톡스 임상 3상을 마무리해 약물 경쟁력을 입증했고, 오는 2026년 1월에는 중증도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진행한다.

아피톡스 적응증은 류마티스관절염 등 다양한 자가면역질환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다발성경화증을 적응증으로 한 임상 3상의 경우,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은 상태다.

아피메즈 미국법인 측은 “최근 미국 FDA가 발표한 ‘비마약성 통증 치료제 개발 지침’에 적극 발맞춰 미국의약품 시장을 공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은 SUPPORT Act(아편유사제 회복·치료 촉진을 목표로 한 법률) 규정의 일환으로 아편유사제를 대체할 수 있는 치료제에 신속 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글로벌 약물중독 치료 시장은 지난해 기준 200억 달러 규모이며 오는 2034년까지 356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7.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지난 16일 인천 송도 셀트리온제약 연구소에서 벡톤디킨슨 아시아지역 제프리 첸 부사장(왼쪽부터), 유영호 셀트리온제약 대표, 제이슨 황 벡톤디킨슨 코리아 사장이 셀트리온제약과 벡톤디킨슨의 업무 협력을 기념하며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셀트리온제약

셀트리온제약, 벡톤디킨슨과 파트너십

CMO 역량·고객 네트워크 결합

셀트리온제약은 지난 16일 글로벌 주사기 제조 및 공급사 벡톤디킨슨, 벡톤디킨슨 코리아 등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3사는 셀트리온제약의 의약품 위탁생산(CMO) 역량과 벡톤디킨슨의 글로벌 고객 네트워크가 결합하고 국내외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사전총전형 주사기 의약품 CMO 사업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벡톤디킨슨이 운영하는 ‘CMO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한다. 이 프로그램은 고객사 요청에 적합한 CMO 기업을 추천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셀트리온제약이 구축한 생산 역량을 소개할 수 있다.

셀트리온제약은 사전총전형 주사기 의약품 CMO 사업을 본격화하며 청주 공장 증설에도 나섰다. 현재 청주공장의 사전총전형 주사기(PFS) 의약품 관련 생산시설은 연간 최대 1600만 시린지를 생산할 수 있다. 원료의약품(DS)조제부터 충전, 이물검사, 조립, 라벨링 및 포장에 이르는 전 공정을 수행한다. 가적으로 오는 2030년까지 청주공장 내 4100평 여유 부지에 생산 설비를 확충, 향후 생산 규모는 현재 수준의 3배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셀트리온제약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PFSCMO 사업을 세계 시장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셀트리온제약만의 차별화된 PFS생산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충치균 99.9% 억제 ‘1450 고불소 치약’

메디안, 치아 표면·손상치아 관리

아모레퍼시픽은 구강 전문 브랜드 메디안에서 신제품 ‘1450 고불소 치약’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메디안 1450 고불소 치약은 충치 예방 성분인 불소를 1450ppm의 고함량으로 함유해 충치균을 99.9% 억제한다. 또 ‘고불소 2X 코팅’ 기술을 적용해 거친 치아 표면과 손상 치아를 관리해 준다. 사용 후 잔여감을 줄여 상쾌함을 구현한 것도 특징이다.

이와 함께 메디안 브랜드 재단장도

이뤄졌다. 새 디자인을 통해 ‘K덴탈케어’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했다.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메디안은 치석 치약과 고불소 치약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메디안 대표 제품인 치석 치약은 누적 판매량 3억 개 돌파, 의약품 수출실적 톱10 진입 등을 기록하며 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정돈된 디자인과 진화된 비주얼 아이덴티티에 글로벌 도약 의지를 담았다”며 “글로벌 소비자들과 적극 소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광동제약, 망막색소변성증 치료물질 도입

美 오큐젠과 ‘OCU400’ 국내 독점
임상3상 진입, 내년 FDA 신청 목표

광동제약은 미국의 바이오 기업 오큐젠과 망막색소변성증 치료제 후보물질 ‘OCU400’의 국내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OCU400은 차세대 유전자 치료제 기전을 갖췄고 현재 글로벌 임상 3상에 진입해 있다. 오큐젠은 오는 2026년 미

국 식품의약국(FDA) 품목허가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망막색소변성증은 유전적 요인으로 망막이 점진적으로 손상돼 시야가 좁아지며 실명에 이를 수 있는 희귀질환이다. 광동제약은 임상 결과, 품목허가 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광동제약은 이번 계약을 통해 안과 분야 포트폴리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

다. 기존 파이프라인으로 노안 치료제 후보물질 ‘브리모콜’, 소아근시 신약 후보물질 ‘NVK002’, 안과 희귀질환 치료제 ‘락손’ 등을 보유하고 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국내 망막색소변성증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와 희망을 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임상이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치료제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HLB제넥스, 헬스케어 브랜드 ‘소디온’ 공개

에스오디 등 3종 재단장

HLB제넥스는 헬스케어 브랜드 ‘소디온’을 공개하며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본격 확장한다고 17일 밝혔다.

HLB제넥스는 소디온을 통해 ‘내 몸의 스위치를 켜다’라는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하고 기존 주력 제품 에스오디(SOD), 스포아프로바이오틱스, 갈락토올리고 프리바이오틱스 등 3종을 재단장한다.

HLB제넥스는 맞춤형 효소 및 바이오 헬스케어 소재 전문 기업으로, 효소 생산의 전 주기를 다루는 기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소디온 ‘에스오디(SOD)’의 경우, 항산화 효소로 알려진 수퍼옥사이드 디스무타제(SOD)를 핵심 성분으로 처방한 제품이다. 이번에는 제품 포장에 친환경 요소가 더해진 것이 특징이다. 국제산림관리협의회(FSC)가 인증한 종이 박스, 친환경 콩기름 잉크 등을 적용했다.



김의중 HLB제넥스대표는 “소비자 요구에 맞춰 기능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브랜드 가치를 새롭

게 정립했다”며 “앞으로도 연구개발과 제품 혁신에 집중하며 기업간거래(B2B)뿐 아니라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헬스케어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애경산업, 다이소물 평점 4.9점 기록

애경산업은 클렌징 전문 브랜드 포인트의 ‘딥 클린 쿵 마스크라 리무버’가 등

완관 행진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포인트 딥 클린 쿵 마스크라 리무버는 지난 6월 국내 군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에서 처음 선보여졌다. 이후 공개 3주 만에 다이소물 입고 물량이 품절됐고 지난 9월 초에는 온·오프라인 전체에서 공급 물량 5만 개가 모두 소진됐다.

이와 함께 소비자 평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9월 2주차 기준 다이소물에서 제품 평점은 5점 만점에 4.9점으로 집계됐다.

해당 제품은 속눈썹 전용 제품이다. 특히 흘러내리지 않는 젤 제형이 속눈썹 뿌리에 밀착되면서 메이크업을 말끔하게 제거해 준다. 제품에 빗이 내장되어 있어 간편하게 사용 가능하다. 영양 및 보습 성분도 함께 처방해 제품력을 높인 것도 특징이다. 한국비건인증원의 ‘비건 인증’을 획득했고 안 자극 대체 시험, 피부 자극 테스트 등을 완료했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단단한 제품 기능성, 합리적인 가격 등에 힘입어 1020 잘파세대를 중심으로 좋은 반응을 얻게 됐다”며 “추가 물량 확보에 빠르게 대응해 현재는 2차 물량이 입고됐다”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2025 물류 & 모빌리티 포럼

모빌리티가 바꾸는 **물류의 미래**

| 일시 | 9월 24일(수) 오후2시 | 장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행사개요

행사명 2025 물류 & 모빌리티 포럼
주제 모빌리티가 바꾸는 물류의 미래
일시 2025년 9월 24일(수) 14:00~17:00 (VIP 티타임 13:30~14:00)
장소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주최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후원  산업통상자원부, HYUNDAI, KSI
등록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문의 물류&모빌리티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프로그램

구분	시간	프로그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14:10	<축사>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김학도 한국협업진흥협회장 조풍연 한국 SW-ICT총연합회 회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10~14:50	허원호 기아 국내 PBV 전략팀장 : 물류 산업에 PV5가 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
강연	14:50~15:20	김기혁 에스더블유엠 대표 : 로봇택시 어떻게 준비해야하나
	15:20~15:50	김영준 파블로항공 대표 : AI 드론의 무한한 확장, 미래 물류 혁신의 출발점
	15:50~16:20	강종수 한국자동차연구원 센터장 : 물류 모빌리티 전기다목적자동차 산업육성
	16:20~16:50	강인호 피코이노베이션 이사 : 중소제약사들이 뭉쳐 만든 피코이노베이션의 물류혁신 스토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기정원, 인적자원개발 우수 인증기관 선정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2025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 사업'에서 정부시책 반영 우수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 16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열린 2025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인증수여식에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안상균 인재경영실장(오른쪽)이 인증서를 받고 있다. /기정원



SK에코플랜트, 자원순환 기부 프로그램 바자회

SK에코플랜트는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본사에서 사회적 기업 '굿월스토어'와 함께 그동안 진행해 온 자원순환 기부 프로그램 'CE100'과 연계한 바자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자원순환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개인컵 사용의 날, 사랑의 폐배터리 캠페인도 이날 함께 진행됐다. /SK에코플랜트



대우건설, 노사합동 클리어 안전문화 결의대회

대우건설은 17일 전 현장 안전 점검 완료 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노사 합동 클리어(CLEAR) 안전문화 실천 결의대회'를 열고 '노사 안전 동행 공동선언'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 김보현 사장(가운데 왼쪽)과 심상철 대우건설 노동조합 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우건설



BGF리테일 '독도사랑 원정대', 독도 후원금 전달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임직원과 가맹점주로 구성된 'CU 독도사랑 원정대'가 독도를 방문해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20여 명의 CU 독도사랑 원정대는 지난 15일 발대식을 가진 뒤 울릉도를 거쳐 독도에 입도했다. 이들은 독도 수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독도사랑운동본부에 후원금을 전달했으며, 후원금은 독도 홍보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BGF리테일



동화약품, 오는 29일까지 '여름생색전' 열어

동화약품은 오는 29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제9회 여름생색전(展)'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여름생색전(展)은 지난 2011년부터 열고 있으며 '가송 예술상' 본선 진출 작가의 작품을 선보여 왔다. 동화약품의 가송 예술상은 고려 시대부터 유래한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예술인 접선(摺扇, 접는 부채)을 주제로 한 공모전이다. /동화약품

현대모비스, 차량용품 체험·전시로 고객 신뢰 높인다

특별 전시회 '미트 모비스' 열어 차량용품 전 개발과정 공개도

현대모비스가 본인만의 색다른 라이프를 추구하는 고객들을 위해 차량 용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 전시회를 연다. 단순히 제품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부터 디자인, 성능 평가, 완성품까지 개발 전 과정을 공개하고 실제 차량에 장착된 형태의 용품 전시를 통해 고객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현대모비스는 19~21일 서울 강남에 있는 차량 특화 전시 카페 에레보에서 차량 용품을 체험하고 개발 스토리를 확인하는 전시회 '미트 모비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이번 전시회에서 용품을 장착한



현대모비스가 오는 19일부터 사흘간 서울 강남에 위치한 차량 특화 전시 카페 'EREVO'에서 차량 용품 전시회를 개최한다.

차량 전시는 물론 용품 개발 과정을 확인하는 갤러리 공간, 고객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참여 공간 등을 마련했다.

먼저 현대모비스는 15개 품목을 실

제 차량에 장착한 형태로 전시하고 북미와 유럽, 인도 등 해외 맞춤형 용품을 전시한다.

특히 현대모비스는 이번 전시회에서 차량 용품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중진공, 상생형 내일채움공제 협업 구축

금융기관 최초로 우리은행과 맞손 5년간 75억 출연해 기업 부담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우리은행과 금융기관 최초로 상생형 내일채움공제 협업 모델 구축에 나섰다.

중진공은 17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우리 상생 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5년간 75억원을 출연해 공제 가입 기업의 부담금을 지원한다.

'우리 상생 내일채움공제'는 우리은행을 급여 계좌로 이용하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근로자가 매월 10만원을 납입하면 기업 부담금 24만원 중 일부를 우리은행이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적정한 금액은 3년형 1224만원, 4년형 1632만원, 5년형 2040만원으로 별도의 복리이자와 함께 장기근속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공제는 요건에 따라 기본형부터 심화형, 공동형까지 가입할 수 있다. 기본형은 근로자가 매월 10만원을 납입하면 우리은행이 6개월간 동일금액을 기업에게 지원한다. 심화형은 기



17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왼쪽부터)중진공 조한교 인력성장이사, 우리은행 배연수 부행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진공

본형 가입자 중 수출입거래 실적을 충족하거나 공급망결제솔루션을 이용하는 기업 가운데 우리은행의 추천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10만원씩 12개월간 추가 지원을 제공한다.

공동형은 심화형 상품 가입자 중 우리은행이 추천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진공도 기업부담금을 매월 10만원씩 12개월간 추가 지원해 양 기관으로부터 최대 24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동형은 2025년 가입자 중 250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bada@

SK온, 유럽대표 신설… 글로벌 경쟁력 ↑

토마스 엘러 유럽대표 선임

SK온이 유럽 시장 영업을 총괄하는 '유럽대표'를 신설하고 글로벌 세일즈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온은 이달 초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 콘티넨탈 출신 토마스 엘러 부사장(사진)을 유럽대표로 선임했다. 엘러 부사장은 2005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0년간 콘티넨탈에서 근무하며 글로벌 세일즈 총괄을 맡아온 자동차 업계 영업 전문가다.

새롭게 신설된 유럽대표직을 맡은 엘러 부사장은 BMW, 메르세데스-벤츠 등 완성차 업체들이 밀집한 독일을 거점으로 유럽 내 신규 수주 확대와 고객사 관리 등 현지 영업을 총괄



한디스

할 계획이다. SK온은 이번 인사를 통해 '현지 고객사 맞춤형 협력 체계'를 구축해 유럽 시장 수요 확대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SK온은 현재 헝가리 코마롬과 이란 차에서 총 3개의 배터리 공장을 운영 중이다. 신규 수주를 확대해 헝가리 공장의 가동률을 높이고 수익성을 개선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SK온 관계자는 "유럽 지역에서 고객사 니즈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라며 "유럽 완성차 업체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다양한 수주 기회를 탐색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LG U+, 추석 맞아 로밍 프로모션 진행

기내 와이파이 무료 제공 등 혜택

LG유플러스가 추석 연휴 해외여행객을 위해 로밍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기내 와이파이 무료 제공 ▲해외 음성 통화 최대 40분 ▲데이터 2배 혜택으로 구성됐다. 우선 이달 18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로밍패스13GB(5만9000원)' 이상 요금제 가입자가 대한항공 장거리 국제선(8시간 이상)을 이용하면, 추첨을 통해 2000명에게 기내 와이파이 무료 이용권이 제공된다.

또 이달 30일까지 '로밍패스 8GB(4만4000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하고 유플러스닷컴에서 혜택을 신청한

고객 전원은 해외에서 최대 40분간 무료 음성 통화를 이용할 수 있다. 무료 통화는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83개국에서 적용된다.

이와 함께 '로밍패스8GB' 이상 가입 고객에게는 데이터가 2배 제공된다. 고객은 해외 현지에서 지도 검색, 메신저, 동영상 스트리밍 등 데이터 사용이 많은 서비스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선보인 '로밍패스 나눠쓰기' 서비스가 출시 14개월 만에 누적 이용자 42만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가족 단위로 이용할 경우 최대 65%의 요금 절감 효과가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서현 기자 seoh@

한미사이언스, 실종 예방 메시지 전달

서울강동경찰서와 '맞손'

한미사이언스와 서울강동경찰서는 지난 16일 '실종아동들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미사이언스는 '텐텐맛 멀티비타민' 제품 상단에 경찰청 '안전드림앱'으로 연결되는 QR코드 스티커를 부착해 전국에 유통한다. 안전드림앱은 경찰청이 운영하는 실종 예방 시스템으로, 18세 미만 아동, 치매환자,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등의 신속한 신원 확인에 활용된다. 보호자는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휴대폰 본인 인증 후 자녀 지문,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을 등록할 수 있다.

김병주 서울강동경찰서장은 "소중한 우리 아이를 지키기 위해 지문 등



'텐텐맛 멀티비타민X경찰청' /한미사이언스

사전등록은 선택이 아님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재교 한미사이언스대표는 "한미그룹 대표 제품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역할을 하도록 지속 협력하겠다"며 "단 한 명의 실종 아동이라도 가족 품에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인사

- ◆헬스투데이 △대표이사 김미경(발행인 겸임)
- ◆휴렛팩커드 △한국HPE 네트워킹 부문 총괄 채기병

부음

- ▲손정숙씨 별세, 최상혁(포항패러글라이딩협회장)씨 모친상=16일 포항시민장례식장 VIP실, 발인 18일 오전 6시30분, 장지 포항시립화장장, 054-253-4444

구독 예찬



신상용의

벤치나라

간 밤에 폭 잤다. 쿠쿠에서 렌탈한 침대에서 눈을 떴다. 삼성전자 AI 구독클럽에서 선택한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을 한 잔 마셨다. 화장실로 이동해 코웨이 비데를 이용한다. 매일 구독하는 경제신문이 오늘도 현관 앞에 배달 왔다. 출근 준비를 마치고 지하철역으로 향한다. 일종의 대중교통 구독 서비스인 기후동행카드를 개찰구에서 찍고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퇴근 후에는 월 이용권을 구입한 구민체육센터에서 운동한다. 집으로 돌아오면 리쏘 안마의자에서 오늘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풀면서 넷플릭스 시리즈를 본다. 물론, 안마의자도 렌탈 프로그램으로 이용 중이다. 이번 주말에는 롯데렌터카 G 카 정기구독 서비스로 가까운 교외로 드라이브를 다녀올 생각이다.

요즘 필자의 일상을 한 번 풀어봤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독자의 하루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글을 써보니 평소에는 크게 못 느꼈지만 구독경제가 생활 곳곳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참고로 필자는 구독경제 예찬론자다.

구독·렌탈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초기 비용 부담이 없다. 만약 위에서 언급한 침대, 냉장고, 비데, 자동차 등을 구독이 아니라 구매를 했다면 비용 부담이 상당히 커서 품목의 절반 이상은 경험조차 못했을 거다. 적은 비용으로 최신 편의기능을 이용해 삶의 질이 높아지고, 이는 직장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구독·렌탈 서비스의 두 번째 장점은 정기적인케어 프로그램으로 시간이 지나도 서비스 품질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점이다. 사용이 아닌 소유, 즉 구매를 선택했다면 제품 관리는 소비자의 몫이다. 하지만 구독·렌탈 서비스는 계약 기간 동안 제품 관리까지 해준다.

이런 장점들 때문에 최근에는 개인을

넘어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구독·경제 시장도 커지고 있다. 프랜차이즈 식당 렌탈창업이 대표적이다. 자영업자 입장에서 프랜차이즈 음식점 한 곳을 낸다는 건 큰 모험이다.

매장 임대료 외에도 인테리어와 주방설비, 디지털 사이니지,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POS), 보안장비 등 매장 운영에 필요한 집기류 구입 등 비용이 한 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한 번에 큰 비용이 소요되는 구매 대신 구독·렌탈로 전환하면 가맹점주가 일단 영업을 시작하고 돈을 벌면서 조금씩 비용을 낼 수 있다. 가맹본사 입장에서조차 창업 문턱이 확 낮아져 신규 가맹점주 모집이 수월하다. 가맹점주와 가맹본사 서로에게 윈윈이다.

소유에서 사용으로, 구매에서 구독으로 소비 트렌드는 변하고 있다. 항상 큰 흐름의 변화 속에는 성공의 기회가 숨어 있다. 예비 벤처·스타트업 창업가들이여, 프랜차이즈 렌탈창업처럼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 아이템을 꼭 찾으시길 바란다.

/㈜프리핀스 대표

21세기형 매국노



기지수첩

서예진
(정치부)

기자의 고향은 강릉이다. 극심한 가뭄을 겪는 그곳 맞다. 강릉은 바다를 끼고 있다. 경포해수욕장 옆엔 경포호도 있다. 둘 다 물인데, 눈앞에 보이는 게 물인데, 쓸 수 없다. 마실 수도 없다. 속된 말로 ‘미칠 노릇’이었을 거다.

가뭄이 심하다보니 지자체장에 대한 규탄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어느 정도는 ‘가뭄도 홍수도 나랏님 탓’과 같은 사고(思考) 회로지만, 일부는 정파적 시각을 빌어 비판했다. ‘기우제 지내는 것도 싫다. 비오면 시장이 기우제 지낸 덕이라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들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어느 시민이 물었다. “혹시, 강릉 사람 맞아요?”

위에 언급된 주장들은 전형적으로 정파에 눈이 가려진 사례다. 삶의 터전이 메달라가는데도 상대 정파의 지자체장이 잘 되는 ‘꼴’은 못 보겠다는 것 아닌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공동체의 유지가 아닌 이 들이다.

동네를 벗어나 전국 단위로 가보자. 우리는 한미 정상회담의 무난한 타결을 기대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담 직전 이상한 메시지를 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밤중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역시 이재명을 혼내주는 트럼프’ ‘트럼프 잘한다. 이제 윤석열을 구하러 와달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다.

최근 발생한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다. ‘혈맹’이라는 미국에 공장을 지어주려, 한마디로 ‘도와주려’ 왔던 근로자들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다. 보통 사람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정부의 빠른 해결, 그리고 이들의 빠른 귀환을 원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저 사람들이 뭔가 잘못을 했겠지’ ‘그러게 누가 불법으로 가래?’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어떤 이들은 ‘트럼프가 이재명을 혼내주기 위해 한국인 근로자를 잡아갔다’며 비웃었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도, 조지아주 사태도, 저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던 이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자 그런 말을 한 적 없다는 듯 숨었다. 보통 이들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 떠든다. 조금만 더 있으면 어느 정도 전모가 파악되거나, 해결될 수 있음에도 말이다. 그리고 이들은 ‘걱정’이 아닌 ‘비웃음’이나 ‘통쾌함’이라는 감정을 드러낸다. 그야말로 21세기형 매국노이자, 해방 후 친일하는 사람들 아닌가. 2025년에 매국노라니, 참으로 신선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들에게 묻고 싶다. “혹시, 한국 사람 맞아요?”

/syj@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9월 18일 (음 7월 27일)	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나뭇잎이 떨어진 것이 엇그제인데 새싹이 나기 시작. 48년생 인생의 최고 선물은 건강. 60년생 모든 일은 마음먹기 나름이다. 72년생 오늘은 황금색상이 행운을. 84년생 집을 잡혀주면 어찌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올 테니.	
 소	37년생 아름다운 소나무를 보니 낙락장송의 성성문이 생각. 49년생 11시 건널목 조심. 61년생 늦지만, 남들을 이롭게 한다. 73년생 형제가 늘 우물 아래 돌을 떨어뜨리는 격으로 방해만. 85년생 사랑에 국경이 없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토끼	38년생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정성으로 기도하면 하늘이 성취시킨다. 50년생 주는 것의 기쁨을 아는가. 62년생 레일을 벗어나지 말고 걸어라. 74년생 덧없는 한 때의 꿈을 꾸어보는 것도 젊음. 86년생 재개발단체에서 기다리던 소식이 온다.	
 토끼	39년생 사방으로 운이 열렸으니 미뤄뒀던 일을 마무리. 51년생 내가 먼저 믿어야 상대 설득. 63년생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기다리면 된다. 75년생 이른 아침부터 천당과 지옥을 왕래하게 되니. 87년생 이동 운이니 산소방문도 무탈.	
 양	40년생 인천에서 친구가 찾아온다. 52년생 내일의 영광을 위해 조금 더 노력. 64년생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니 일도 풀림. 76년생 도심초사한 결과가 아주 좋게 마무리된다. 88년생 배우자의 부채로 집을 떠나 살아야 하니 가슴 아프다.	
 뱀	41년생 불만이 있어도 속으로만 생각. 53년생 둘다리도 두드리고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65년생 한 번에 포기하기에는 이르다. 77년생 창업하기 전에 경험자를 찾아가면 지혜가 생긴다. 89년생 가족에게 자신의 정확한 의사 표현을 하자.	
 말	42년생 자식 때문에 근심이 많다. 54년생 결혼은 내 뜻대로. 66년생 흘러간 세월을 그리워 말고 내일을 준비. 78년생 임금 뒷사람에게 충성을 다하는 자신의 노력을 낮추어 이르는 견마지로犬馬之勞이다. 90년생 원하던 일이 잘 풀린다.	
 양	43년생 생일이라 선물을 받는 기쁨이 있다. 55년생 일도 많지만 즐거움 하루이다. 67년생 사랑과 믿음은 상관관계이니 함께하는 약속. 79년생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으니. 91년생 사돈댁이 집안을 쥐고 흔들어도 내 팔자소관.	
 원숭이	44년생 숨은 실력을 자랑하고 남들도 알아주는 기회가 온다. 56년생 결심을 했으면 행동으로 옮겨라. 68년생 초심을 생각하고 힘내라. 80년생 오늘하늘이 무너져도 내일 솟아날 구멍은 있다. 92년생 민망한 일을 당해도 당당하게 맞서라.	
 닭	45년생 뒤늦게 인연을 만나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 57년생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아 앞으로 나가라. 69년생 부부 두 사람이 마음을 합치면 재물이 늘어날 수밖에. 81년생 마음을 굳게 먹고 포기. 93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편안한 하루.	
 돼지	46년생 기술을 배우다가 지친다고 포기말라. 58년생 견딜 수 없는 슬픔도 세월이 가면 희석이 된다. 70년생 시간이 갈수록 기다리면 보답이. 82년생 자기의 능력은 헤아리지 않고 질책하는 상사에게 감정폭피 말도록. 94년생 오전부터 행운.	
 돼지	47년생 자녀 혼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59년생 상대에게 막대한 희망을 주지 마라. 71년생 어디서 바람이 불어대니 마음이 허전하다. 83년생 오늘 비가 온 다 해도 가져야행은 출발이다. 95년생 갈수록 조상님 은덕이 각골난명刻骨難忘이다.	



김상회의四季

명당과 혈자리

풍수지리라고 하면 명당을 먼저 떠올리고 여기에 더해서 좋은 땅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여긴다. 틀린 말은 아니나 풍수지리는 단순하지 않다. 동양의 삶과 문화가 깊이 배어있는 철학이라고 하는 게 더 적합하다. 자연의 좋은 기운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아서 삶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는 철학적 사고가 융합된 이론에 가깝다. 명당은 좋은 기운이 모여 자연의 환경과 인간의 생활이 긍정적으로 어우러지는 공간이다. 그리고 혈자리는 명당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명당은 입지를 정할 때 가장 좋은 공간이며 길지를 뜻한다.

혈은 명당에서도 가장 강력한 기운이 응집하는 정점에 해당한다. 명당이 땅의 기운이 머무는 자리라면 혈은 그 기운이 물려있는 곳이다. 명당과 혈을 찾으려면 심도 있는 분석을 해야 한다. 주변 산세와 물의 흐름을 봐야 하고, 공간이 향하고 있는 방위, 땅의 질이 어떠한지 분석한다. 혈은 인체의 경락과 비슷하다. 자연의 생기가 흐르는 주요한 지점으로 자연의 에너지가 가장 충만한 곳이다. 풍수지리에서는 땅속에 흐르는 기운이나 에너지가 모이는 경로를 용맥이라 하며, 명당이나 혈을 찾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용맥이 힘있게 내달리다 멈춰 선 지점, 그기운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곳에 혈이 만들어진다. 혈중에서도 진혈은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 바람을 갈무리하고 물을 얻는 장풍득수가 그 첫 번째다. 뒤로는 산이 바람을 막아주고 앞으로는 물이 감싸듯 흐르는 배산임수의 형상을 말한다. 더해서 청룡 백호 주작 현무가 혈을 보호해야 한다. 혈 자리를 포함해서 주변의 터를 명당이라고 하고 내명당과 외 명당으로 나눈다. 내명당은 무덤이나 건물의 바로 앞을 말하고 외명당은 그보다 멀리 떨어진 곳을 말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각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미움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2			9		3			8
			6			9		
	5			1	8			
8		4		9			2	6
		5	4		1	8		
9	3			2		6		1
			8	4			6	
		7			6			
5			2		9			7

7	1	3	6			4	9	
3		9			1			
	6				7	9		
1				3				
4			7	2				1
				5				9
		2	5				1	
			4			5		6
	2	7			6	1	8	4

2	8	7	6	8	2	1	9	9
6	8	2	9	6	9	2	1	7
9	1	2	7	8	2	6	6	6
1	9	9	7	2	8	8	6	6
6	6	8	1	9	7	9	2	2
9	2	6	9	6	1	7	2	8
2	7	2	8	1	6	6	9	9
7	2	6	2	9	9	6	8	1
8	1	9	6	2	6	9	7	2

첨단학과 수시 경쟁률 ‘주춤’… 논술전형만 71.8대 1 강세

진학사, 서울 주요대 경쟁률 분석
고려대·서울대 등 6개 대학 하락
교과·종합 전형 확대에 분산 양상
내신 부담 회피, 논술 자신감 쏠려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반도체·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 등 첨단학과 및 계약학과의 경쟁률이 교과·종합전형은 하락하고, 논술전형은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내신과 학생부에 대한 불안감 속에, 상위권 학생들이 수능·논술 역량으로 승부할 수 있는 전형으로 몰린 결과로 분석된다.

17일 진학사에 따르면,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등 서울 6개 대학 첨단·계약학과의 2026학년도 수시 경쟁률은 전년도보다



/유투이미지

모두 낮게 나타났다.

전체 평균 경쟁률은 19.88대 1로,

2025학년도(21.34대 1)에 비해 1.46%p 떨어졌다. 대학별로는 ▲고려대 19.16대 1→17.78대 1 ▲서강대 36.21대 1→32.80대 1 ▲서울대 9.98대 1→7.63대 1 ▲성균관대 27.02대 1→24.80대 1 ▲연세대 16.44대 1→13.25대 1 ▲한양대 34.42대 1→30.92대 1로 집계돼, 모든 대학에서 경쟁률이 하락했다.

첨단·계약학과는 취업 전망과 미래 성장성을 바탕으로 수험생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쟁률 흐름은 일반 학과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형유형별 경쟁률을 살펴보면 학생부교과전형은 9.15대 1로, 전년도(13.02대 1)보다 3.87%p 하락했다. 올해 수험생 수증가로 상당 지원을 기피하는 경향이 첨단학과 및 계약학과에서도 동

일하게 나타난 것이다. 전체 지원인원은 감소한 반면, 선발인원과 모집단위는 증가하면서 수요가 여러 대학으로 분산된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입시계는 보고 있다.

학생부종합전형도 14.13대 1로 전년(14.60대 1)에 비해 소폭 떨어졌으나, 지원 인원은 증가했다. 지원자가 늘었음에도 모집 인원이 크게 확대되면서 전체 경쟁률은 낮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기존에 운영되던 전형과 모집단위에서는 경쟁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성균관대 바이오신약·규제과학과, 한양대 면접형(공과대학 신설) 등 신설된 모집단위와 전형에 지원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이는 신설 학과·전형에 대한 기대 심리가 수험생들에게 영향을 미친 결

과”로 분석했다.

반면 논술전형은 71.77대 1로 지난해 67.03대 1보다 오히려 4.74%p 상승해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내신성적은 불리하지만 수능최저 충족에 자신있는 수험생들이 ‘최저 충족 가능성이 높으니 도전할 만하다’는 판단으로 논술전형을 적극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연철 소장은 “첨단학과나 계약학과는 미래 전망이 밝아 수험생 선호가 높지만, 실제 지원에서는 안정 지원 심리가 크게 작용했다”며 “결국 내신·비교과 부담이 적고 수능 성적만 확보하면 유리한 논술전형으로 수험생이 몰리면서 논술전형에서만 경쟁률 상승이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교원 정신건강 지원 ‘선생님 동행 50인’ 가동

서울교육청, 법 시행 맞춰 사업 출범
상담·치유 프로그램으로 소진 예방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오는 19일 ‘교원지위법’ 제29조의2 시행에 맞춰,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선생님 동행 50인’ 마음다터 사업을 출범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월 학생 마음건강 지원 협약을 맺은 바 있는 국립정신건강센터·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와 협력을 교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교원들이 낯설게 느껴왔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학교 현장에 친화적인 전문 의료기관과 전문의 명단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교원의 의료기관 접근성

을 높이고 상담·진료 참여를 지원, 교원 정신건강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서울시교육청은 협약에 따라 ▲교원 상담·진료 지원 ▲교원·교직원 보호 자문 ▲학교교육력 회복을 위한 예방·치유 프로그램 운영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신건강 전문성 향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원·교직원의 회복을 지원하고 학생 학습권 보호, 학부모 신뢰 확보, 학교 안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19일에는 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와 함께 교원 소진 예방·치유 연수를 연다. 단순 체험형을 넘어 교원 소진 요인을 분석하고 현장 사례를 검토하

며, 전문의 강의를 통해 업무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사례별 컨설팅을 통해 예방·치유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마음다터’와 협력해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 SEM119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근식서울시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모든 구성원이 건강해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고, 교원이 안정적으로 수업할 수 있다”며 “교원지위법 시행일에 맞춰 실효성 있는 체계를 마련해 교육활동 전반에 공백 없는 보호와 지원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보급

고려대 생명과학대학과 공동 연구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이 서울시농업기술센터와 16일 오전 10시 센터 세미나실에서 치유농업 확산을 위한 ‘치유농업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7일 서울시와 고려대에 따르면, 양 기관은 연구 협력을 통해 시민의 건강 회복·유지·증진에 기여하고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보급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상태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소장과 조용성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학장 등 관계자 20명이 참석했으며, 양 기관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치유농업 확산과 농업을 통한 건강 증진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사례 모델화 및 연구 협력 지원 ▲농업 분야 전문 인재 육성을 위한 상호 교류 ▲치유농업 프로그램 교류 및 연계사업 추진 등이다.

서울시와 고려대는 앞으로도 긴밀한 실무 협력을 통해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왼쪽부터) 조상태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소장, 조용성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학장. /서울시

학술적 연구와 과학적 효과 검증, 인재 양성 및 현장 적용 확대 등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치유농업의 지속적 확산과 실질적 성과 창출에 힘을 기울인다.

조상태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의 정신·신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연구협력과 현장 실증으로 치유농업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더 많은 서울 시민이 치유농업의 가치를 경험하게 될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우이신설 연장선’ 2032년 준공 목표

서울시, 실시설계 계약 체결 공사 착수
4690억 투입해 솔밭공원~방학역 연결

오랜 기간 표류해 온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이 마침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서울시는 우이신설 연장선 건설사업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우선시공분 공사와 토목·건축·궤도·시스템 등 전 분야에 걸쳐 실시설계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올해 8월 기본설계 적격심의를 통과하고 선정된 ‘HL디앤아이한라 컨소시엄’과 지난 16일 실시설계를 포함한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은 초기엔 기존 노선에 연장선을 통합하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됐으나 2020년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는 등 장기간 진통을 겪었지만 이



우이신설 연장선 노선도.

번 계약 체결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 동북권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교통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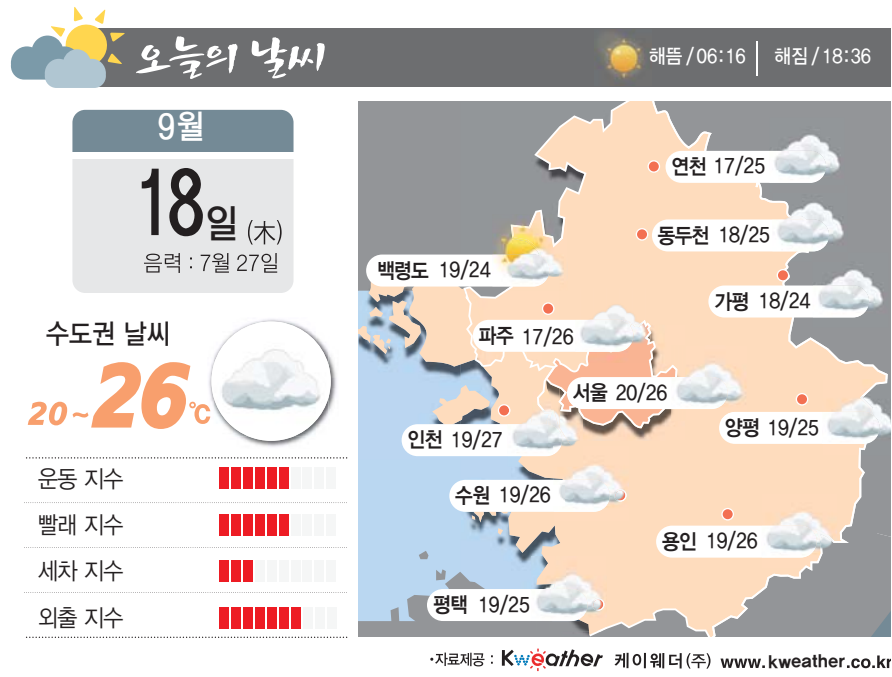
우이신설 연장선은 현재 운영 중인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과 1호선 방학역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 3.94km 정거장 3개소(방학역 환승 포함)가

신설된다. 총 사업비 4690억원이 투입되며 전체 공사 기간은 공기적정성 심의를 거쳐 79개월로 산정, 오는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된다.

이번에 체결된 계약은 실시설계와 병행하여 진행되는 우선시공분 공사로, 시는 내년 9월까지 ▲우선시공분 공사 ▲실시설계 ▲각종 영향 평가를 완료하고 설계 기간 중 지반침하 위험을 막기 위해 지하안전영향평기도 철저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연장선이 개통되면 우이신설선과 1호선 간 직접 환승이 가능해져 동북권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 환승 편의 개선 등 대중교통 이용 전반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동북권 주민의 바람에 부응하고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中 민간기업 재사용 로켓 ‘텐룽3’ 1000t 추력 시험 성공
▲엔비디아, 중국 전용 AI칩 RTX 6000D 출시… 시장 미온적 반응

/사진 뉴시스

▲‘슈퍼 마리오’ 드라기, EU 경제 경고… “상황 파악 못 하고 있어”
▲관세 영향에 日, 8월 대미 무역 흑자 50%↓… 자동차 수출도 28%↓

▲EU, 인니와 다음 주 무역 협정 체결… 美·中의 존도 다각화
▲네타냐후, 이달 말 백악관 방문… “트럼프가 초청”



보험사
틈새보장
신상품 선배
08



Life

현대모비스
차량용품 체험 등
고객 신뢰 높여
L4



맛·재미 다 잡은 ‘장수스낵’... 고래·상어 품고 바다 건너다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오리온 ‘고래밥’

1984년 오리온이 선보인 ‘고래밥’은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과자가 아니었다. ‘재미로 먹고 맛으로 먹는 오리온 고래밥’이라는 광고 카피가 보여주듯, 고래밥은 출시 당시부터 놀이와 재미 요소를 담은 ‘엔터테인먼트형 과자’의 원조였다. 바삭한 식감과 해양 동물 모양의 독특한 콘셉트로 아이들은 물론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국민과자로 자리 잡았다. 올해로 출시 41주년을 맞은 고래밥은 한국 시장에서의 성공을 발판으로 중국과 베트남 등 해외까지 무대를 넓히며 글로벌 스낵으로 도약했다.

◆1980년대 신제품 경쟁 속 탄생

1980년대는 제과업체가 앞다퉈 신제품을 출시하던 시기였다. 오리온은 차별화된 과자를 개발하기 위해 최신 생산 설비를 도입하고 해외 제과사와 기술 제휴에 나섰다. 그 결과 1984년 3월, 해양 동물을 모티브로 한 입체형 과자 ‘고래밥’이 탄생했다. 속이 비어 있어 바삭한 식감이 특징이며, 고래·상어·문어·오징어 등 총 9종의 바다 생물을 구현한 점은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브랜드명 ‘고래밥’은 출시 당시 사내 공모로 정해졌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졌지만, 제품 특징을 단순하면서도 재미있게 표현한 ‘고래밥’이 최종 선정됐다. 이후 고래밥은 20년 넘게 변함없는 인기를 구가하며 오리온의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았다.

1984년, 재미요소 담은 독특한 과자 출시
고래·상어·문어 등 해양동물 모티브로 구현
바삭한 식감에 볶음양념 시즈닝까지 더해
41년간 맛·재미 동시에 주는 스테디셀러로

2007년에는 기존보다 크기를 3배 키운 ‘왕고래밥 볶음양념맛’을 선보였다. 기존의 바삭한 맛은 그대로 유지하되 한입에 여러 개를 먹는 듯한 만족감을 강조해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최근에는 국립 한글박물관과 협업해 출시한 ‘한글날 한정판 고래밥’이 화제를 모았다.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언해본이 실려있는 ‘월인석보’ 판본체를 패키지 디자인에 적용해 창제 초기 한글의 멋스러움을 표현했고, K-컬처 열풍 속에서 한글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데 기여했다. 현재 고래밥은 볶음양념맛, 달콤치즈맛, 왕고래밥 볶음양념맛, 핫고래밥 매콤양념맛, 한글날 한정판 등 총 5종이 판매되고 있다.

◆‘편 콘셉트’로 이어온 40년 마케팅

고래밥의 성공 뒤에는 ‘재미’를 브랜드 핵심 가치로 삼은 마케팅 전략이 있었다. 오리온은 제품 패키지와 프로모션을 통해 고래밥을 단순한 과자가 아닌 놀이와 경험을 주는 브랜드로 발전시켰다.



출시 초기
고래밥 패키지



최근
고래밥 패키지



한글날 한정판
고래밥

2015년에는 종이접기 전문가 김영만 씨와 함께 ‘해양생물 종이접기’를 고래밥 패키지에 담아 교육적 요소를 더했다. 이듬해에는 고래밥 캐릭터들의 모험기를 그린 ‘톡톡피즐’을 패키지에 반영해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2017년에는 카카오톡 이모티콘으로 고래밥 캐릭터를 무료 제공하며 모바일 세대와의 접점을 확대했고, 2018년에는 게임업체와 협업해 고래밥 캐릭터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을 출시했다. 이처럼 소비자와 소통하고 즐거움을 제공하는 다양한 시도가 고래밥을 세대를 넘어 사랑받는 브랜드로 만들었다.

◆해외판 ‘하오뚜어위’와 ‘마린보이’

국내에서 입지를 다진 고래밥은 2000년대 이후 글로벌 시장 진출에 속도를 냈다. 오리온은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내세워 시장 분석과 소비자 조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맛과 제품명을 적용했다.

중국 시장에는 2006년 ‘하오뚜어위(好多魚, 물고기 많다)’라는 이름으로 진출했다. 단순하면서도 재미있는 제품명은 현지 소비자들에게 금세 친숙해졌다. 여기에 토마토맛, 해조류맛, BBQ맛 등 현지 입맛을 겨냥한 다양한 플레이버를 선보이며 인기를 끌었다.



중국서 출시한
‘하오뚜어위’

한글 아름다움 알린 한정판 고래밥 ‘화제’
종이접기, 이모티콘 제공 등 소비자와 소통
2000년대, 중국·베트남 등 세계시장 진출
‘편 콘셉트’ 살린 마케팅 펼쳐... 제품 차별화

베트남에는 2010년 ‘마린보이(Marine Boy)’라는 이름으로 진출했다. 고래밥은 단순한 간식을 넘어 ‘학습놀이 과자’라는 차별화된 포지션으로 자리 잡았다. 집중력과 창의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라는 콘셉트가 부모 세대까지 사로잡은 것이다. 고래와 상어 캐릭터의 대결 구도를 담은 스토리텔링 광고와 프로모션도 인지도 확산에 큰 역할을 했다.

더 나아가 2019년에는 ‘고래’에 맞설 새로운 캐릭터로 육지 동물인 ‘공룡’을 전면에 내세운 신제품 ‘공룡밥(베트남 현지명 정글보이, Jungle Boy)’을 출시했다. 티라노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벨로시랩터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룡 캐릭터를 과자 모양에 적용해 즐길 거리를 늘렸다. 고래밥 출시 35년 만의 새로운 시리즈 도전이자, 현지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히는 전략적 행보다.

고래밥은 지난 41년 동안 ‘재미와 맛을 동시에 주는 과자’라는 브랜드 정체성을 지켜왔다. 오리온은 앞으로도 편 콘셉트를 살린 마케팅과 차별화된 제품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 확장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 K-컬처 열풍과 맞물려 고래밥은 단순한 과자를 넘어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매개체 역할까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왕 고래밥·핫 고래밥



▲김세영, 시즌 첫 승 도전...LPGA 아칸소 챔피언십 출격
▲‘박석민 아들’ 복일고 투수 박준현, 전체 1순위로 키움행 /사진 뉴시스

▲메시의 마이애미, 김기희의 시애틀 완파...리그스컵 패배 설욕
▲뮤지컬 ‘비하인드 더 문’ 11월 개막...유준상·정문성 출연

▲제14회 박경리문학상 수상자에 인도 출신 아마타브 고시
▲‘케데헌’ 마침내 넘었다...넷플릭스 콘텐츠 첫 3억뷰

SAMSUNG



Galaxy Z Fold7 | Z Flip7
Galaxy AI ✨

samsung.com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특정 AI 기능을 사용하려면 삼성계정 로그인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삼성닷컴에서

